



불기 25550년  
가을호 통권 제 98호  
운문승가대학

# 雲門



불기 2550년 가을초 편집 제98호

# 雲門

## 목 차

호거산 운문사	2
죽림헌	3 가을 편집부
교수논단	4 아름다운 가을의 하모니처럼 명성스님
차례법문	6 眞如緣起에 대한 고찰   명성스님
학인논단	10 신통묘용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종희스님
후박향기	12 대혜『서장』의 日用禪에 대한 고찰 경석스님
특별기고	16 밭에서 내가 얻은 수확 여욱스님
깨달음으로 가는 길	18 가을걷이 기후스님
선사이야기	21 손톱 위의 흙 편집부
특별기고	22 망상 내지 마라 … 할! 등광스님
공간	24 배아연구와 생명윤리   김성철
노스님탐방	31 문득, 길을 나서다 해승스님
담소	32 우리 도감 노스님 무연스님
Buddha's Answers	34 또 가을이 오고 조은
想	36 The Human Route 편집부
끌없는 여정	37 바람이 분다 해승스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38 내 말 훔쳐가지 말그래이! 지환스님
풍경소리	42 가을 연꽃처럼 자기를 접을 때 이미령
깨달음으로 가는 길	44 가을 햇볕 안도현
수행의 두레박	45 서산대사의 공부 점검법 편집부
	46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성민스님
	48 산 동조스님
	50 삭발, 그 설레임으로 범수스님
운문논평	52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편집부
운문소식	54
등불	55 求道 한기듬



암부리고 새울기에  
여름만여겼더니  
어이인찬바람이  
입자우(오새날)리나  
두어라세월이하는장을  
탓할누가있으랴  
일여보스님의시를적어  
효정이명숙

| 죽림천 |



# 아름다운 가을의 하모니처럼

명 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창밖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갑니다.  
문득 예전에 어떤 학인이 물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은 '함께'라고.

운문사에는 많은 스님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함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과 운문산의 소나무, 들판의 허수아비까지 모두 우리와 '함께'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참 소중하면서도 때로 그 말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나 그 중 가장 가깝고 소중한 도반들과 말이죠.

論語에 '君子는 和而不同하고 小人은 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同'이란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지만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왔지만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제각기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모습을 지닌 존재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소인들의 '同'입니다. 소인들은 나와 문종이 같고, 같은 지역 출신이며, 성씨가 같거나 또는 학연이 같은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나와 취미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다른 것을 모두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합할

수 없습니다.

화합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와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 모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똑같은 하나의 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화합 역시 나와 다른 것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화합하려면 무엇보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같기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인들의 '同', 다시 말해 附和雷同이 되겠지요.

여러 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화합하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것,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군자는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同하지 않고, 그 '다름'으로 다른 '다름'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和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좁은 시야를 벼리고 더 보편적인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자기를 버리고 반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학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 되려면 나와 같은 음을 고집하지 말고 나와 다름을 수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우선 갖추어져야 한다고. 그렇지 않다면 '함께' 있음은 한갓 소인 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지요.

가을 햇살에 산 빛이 아름답습니다. 가을 산이 온갖 색으로 물들어 있지만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모습들이 모여 아름다운 화합 승가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

# 眞如緣起에 대한 고찰 I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 목 차

1. 序 言
2. 眞如의 意義
3. 起信論의 眞如緣起說
  - (1) 緣起의 根源인 阿黎耶識
  - (2) 染法연기
  - (3) 淨法연기
4. 結 語

## 1. 序 言

이 우주간의 一切萬有는 어떻게 현상하여 전개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관찰하는 법을 불교에서는 緣起論이라 한다. 기독교에서는 全知全能한 唯一絕對神이 우주만유와 인류를 창조한 것이라 하며, 또 인도의 바라문교에서는 唯一의 梵(Brahman)으로부터 이 우주만물이 전개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불교는 본래부터 우주 창조신인 조물주의

神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주와 일체만유는 어떻게 전개된 것인가? 『佛本行經』<sup>1)</sup> 卷 49에 「諸法從因生 諸法從因滅」이라든가 또 『入楞伽經』<sup>2)</sup> 卷 2에 「一切諸法從因緣生」이라든가 또 『中觀論』<sup>3)</sup> 四諦品에 「未曾有一法 不從因緣生」등이라고 있는 바와 같이 一切萬有는 서로 因이 되고 서로 緣이 되어 절 서정연한 因果律에 의해서 現象한다는 것이니 이것 이 소위 緣起의 理法이다. 그런데 이 緣起法에 관해서 여러 가지 緣起說이 있는데, 業感緣起說, 賴耶緣起說, 眞如緣起說, 法界緣起說, 六大緣起說, 佛界緣起說 등이 그것이다.

즉 일체만유의 生起의 원인을 일체중생이 造作하는 業力에 있다고 보는 것을 業感緣起라 하고, 그 생기의 원인을 일체중생의 心識의 주체인 阿賴耶識으로부터 變現한 바라고 설하는 것을 賴耶緣起라고 한다. 그 다음에 一切諸法의 實在的인 본체 즉, 眞如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主體로부터 생기한다고 설하는 眞如緣起說이 있고 또 이와 같이 現象界的 本體를 인정하는 이상 現象이 곧 本體요, 本體가 곧 現象이므로 一切現象은 現象 그대로가 곧 本體의 活現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現象은 서로 因이 되고 緣이 되어 無盡한 緣起를 이루는 것을 法界緣起라고 한다. 또 法界的 구체적인 實體를 地, 水, 火, 風, 空, 識의 六大라 인정하고 이 法界的 삼라만상 그대로가 大日如來의 全身體라 설하여 이 우주만유는 大日如來의 實體로부터 緣起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六大緣起說이 있으며, 또 이 法界的 근본을 추궁하면 그것은 一活佛의 세계로서 일체의 현상은 모두 一佛世界로부터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하는 佛界緣起說 등이 있다.

1) 佛本行經 … 60卷 수나과 사나글다 번역, 석촌의 탄생으로부터 출가성도등 일대의 사실을 말하고 불제자의 귀의에 관한 안연까지 기록.

2) 入楞伽經 … 十卷楞伽라고도 하며 略해서 楞伽經이라고도 함. 楞伽經의 현존한 3本중에서 513년 菩提流支가 번역한 것. 五法, 三性, 八識, 二無我 등의 뜻을 설하고 一異有無 등의 집착을 여의고 如來藏佛性의 理에 修入하는 것을 밝힌 것. 望月佛教大辭典 5卷, p.4127.

3) 中觀論 … 4卷. 용수보살 지음. 구마라즈 번역. 줄여서 中論이라 한다. 27品 446偈로 되었고 十二門論, 百論과 함께 三論宗의 所依論, 그 내용은 가장 철저한 中道를 주장하여 空과 假를 과하고 다시 中道에 집착하는 見解도 과하여 八不中道 곧 無所得의 中道를 말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緣起說中 「眞如緣起說」을 「起信論」에 의거해서 약술하고자 한다.

## 2. 眞如의 意義

먼저 原始經典<sup>4)</sup>에 眞如라고 설한 근거를 찾아본다면 『雜阿含經』<sup>5)</sup> 卷 21에 「以一乘道 淨衆生 離憂悲 得眞如法」이라고 하여 진여의 내용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그 명사만은 나타나 있다. 그 후 部派間에도 이 眞如說은 중요시 되었던 모양으로 化地部<sup>6)</sup>에서 擇滅眞如, 非擇滅眞如, 虛空眞如, 不動眞如, 善法眞如, 不善法眞如, 無記法眞如, 道支眞如, 緣起眞如 등의 九種을 설하였으니 眞如緣起說에서 본다면 주목되는 사실이다. 또 『大般若經』<sup>7)</sup> 卷 567에 의한다면 「世尊何謂諸法眞如 天王當知 眞如深妙 但可智知 非言能說 何以故 諸法眞如 過諸文字 離語言境 一切語業不能行故 離諸戲論 絶諸分別 無此無彼 離相無相 遠離尋伺」라고 하여, 眞如는 언어문자의 모든 회론을 여의고 망상분별의 모든 心緣의 相을 끊었으며 相과 無相을 여의고 彼此가 없는 것이므로, 如來의 眞如와 衆生의 眞如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여 眞如의 당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또 『成唯識論』<sup>8)</sup> 卷 9에 「此諸法勝義亦即

是眞如 眞謂眞實顯非虛妄 如謂如常表無變易」이라고 한 것을 본다면, 眞如는 현상계의 일체제법의 실체로서 진실하여 항상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요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現象界諸法의 實體가 될 뿐이요, 變易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眞如로부터 어떻게 現象界諸法이 緣起가 될 수 있는 것인가. 『大般若經』卷 569에 「諸法雖生 眞如不動 眞如雖生諸法而眞如不生 是名法身」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眞如로부터 現象界의 一切諸法이 現象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眞如緣起說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一眞如로부터 一切諸法이 전개된다고 설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眞如緣起說의 발단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眞如緣起說이라 하면 누구나 다 『起信論』<sup>9)</sup>을 상기할 만큼 이 論은 진여연기에 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起信論』에서는 眞如를 衆生心의 實體(本體)라고 정하고 있다. 『起信論』에 의하면 「法이란 이른바 중생심으로서 이 마음이 곧一切世間法과 出世間法을 섭하느니라」<sup>10)</sup>고 하였다. 즉 法이란 곧 중생의 마음이며 이 중생심의 실체가 眞如라는 것이다. 이 중생심에는 實體의 眞如門의 뜻과 現象의 生滅門의 뜻이 있는데, 그 實體는 不

4) 原始經典 … 불교의 초기의 교리가 아직 발전 또는 정리되지 못하고 대승사상이 발전되기 이전의 불교경전.

5) 雜阿含經 … 50卷 宋의 구나발타라 번역, 四阿含(長阿含, 中阿含, 雜阿含, 增一阿含)의 하나. 다른 아함에 들지 아니한 것을 주워 모은 것. 내용은 가장 원시불교의 행태를 지녔고 설법한 내용도 극히 간단한 苦, 空, 無常, 無我 또는 八正道의 원형대로 표시되었으며 부처님과 불제자들의 면목이 뚜렷이 나타났다.

6) 化地部 … 小乘, 二十部의 하나. 불멸 후 300년에 一切有部에서부터 따로 나온 것. 宗輪論 述記에 「이 部의 主는 본래 國王으로 王이 가느리 는 界地內의 地上의 사람을 化度하였으므로 化地라 함.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여 佛法을 弘宣하고 根本을 따라 이름을 化地部라 하였음.」, 韓國佛教大辭典-七卷 p.311.

7) 大般若經 … 唐나라 현장 번역. 大般若波羅蜜多의 약칭으로 大品般若經이라고도 함. 600卷 4차 16회 39품으로 나누고 80餘科의 명수를 들여 모든 법은 좌다空하다는 사실을 밝히다.

8) 成唯識論 … 10卷 당나라 현장 번역. 法相宗의 중요 典籍. 世親의 唯識思想의 대표적인 「唯識三十頃」을 門下의 十大論師가 해석한 10개의 학설은 護法을 전통으로 하고 다른 이들의 말을 비판하여 종합해서 659년에 번역한 것. 八識을 자세히 말하여 인식의 과정을 명백히 하고 또 실천적 수행의 五階位를 말한다.

9) 起信論 … 大乘起信論의 약칭. 인도의 馬鳴보살이 짓고 眞諦三藏이 번역함. 내용은 ①因緣分 ②立義分 ③解釋分 ④修行信心分 ⑤勸修利益分의 五分으로 나누었음. 그중에 立義分, 解釋分은 教理論으로一心, 二門, 三大를 말하고 修行信心分의 一分은 實踐論으로 四信五行을 말하였다. 注釋書로는 靈影慧遠의 義疏四卷, 海東元曉의 疏二卷, 賢首法藏의 義記가 있다. 이것을 起信論의 三大疏라 함. 韓國佛教大辭典-一卷. p.687

10) 大乘起信論 海東元曉疏 卷一 18下 6行.

生不滅 不增不減하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절대무한한 것이다. 그러나 現象은 生滅하고 增減하며 彼此가 다름이 있는 상대 유한한 것이다. 이 真如와 生滅의 二義는一心의 두 가지 뜻이므로 真如를 떠나서 生滅이 없으면, 生滅을 떠나서 따로 真如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真如와 生滅의 관계는 不一不異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과 과도의 관계와 같아서 물은 靜의인 것이나 과도는 動의인 것이므로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不一) 그렇다고 해서 물을 여의고 과도의 體가 없으므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不異). 즉 實體를 여의고서 現象이 존재할 수 없고 또 現象을 여의고서 實體가 따로 없다.

이상과 같이 真如는 오직 중생심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一切諸法의 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論에 心真如者는 一法界의 大總相이요 法門의 體라고 하였다. 만약 真如가 이와 같이 不生不滅하고 真如平等하여 하등의 차별이 없고 변화도 없다면 우리들이 현실에서 감각하는 이 현상계는 어째서 千差萬別하고 생멸변화 하는 현상만을 보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一切諸法 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心念卽 無一切境界之相』<sup>11)</sup>

말하자면 心真如의 心性은 不生不滅한 것이지만 妄念을 통해서 一切萬有를 보게 되므로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면 색안경을 쓰고 外界的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은 모두 안경의 色으로 인해 변하여 보이고 그 사물의 본색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妄心이라는 색안경으로 萬物을 보기 때문에 萬有의 真相을 真相 그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真如로부터 現象界의 諸法이

어떻게 緣起되는 것인가.

### 3. 起信論의 真如緣起說

#### (1) 緣起의 根源인 阿黎耶識

『起信論』에 의하면 真如에는 不變과 隨緣의 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緣起는 이 二義 가운데 隨緣의 뜻에 의하여 善惡諸緣을 따라서 千差萬別의 染淨諸法을 연기한다. 그러나 얼핏 생각하면 不變과 隨緣은 서로 모순된다. 왜냐하면 그 본체가 常住不變하여 不生不滅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善惡의 諸緣에 따라서 생멸변화하는 제법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不變이라 함은 唯識家<sup>12)</sup>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凝然常住 不作諸法이라 볼 것이 아니라 隨緣하여 諸法을 緣起하면서 항상 性德인 不變義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 즉 거울의 바탕이 본래 청정하여 그 本性을 바꾸지 않으므로 능히 사물을 비추는 것이니 사물을 비춤에 의하여 드디어 鏡體의 청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真如가 隨緣하여 諸法을 연기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그 體가 不變하므로 능히 隨緣하여 諸法을 연기하고 諸法을 연기함에 의해 도리어 真如의 不變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不變과 隨緣의 두 가지 뜻은 서로 真如의 性德을 나타낼지언정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起信論』에 「依一心法有二種門 云何爲二 一者心真如門 二者心生滅門 是二種門 皆各總攝一切法」<sup>13)</sup>…… 心生滅者依如來藏故 有生滅心 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 非一非二名爲阿黎耶識<sup>14)</sup>이라고 하였으니 不變

11) 大乘起信論 海東元曉疏 卷二 2上 9行.

12) 唯識家 …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阿黎耶識으로부터 緣起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法相宗을 연구하는 학자들.

13) 大乘起信論 海東元曉疏 卷一 21下 6行.

14) 大乘起信論 海東元曉疏 卷二 8上 4行.

絕對의 心眞如가 起動하여 隨緣現象한 것이 곧 心生滅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如來藏이란, 如來를 간직한 心이라는 뜻으로서 本自具足한 自性清淨心인 佛性, 즉一心의 本體인 眞如를 가리킨 것이다. 不生滅이 生滅과 화합해서 非一非異라 함은 本體와 現象 즉 心眞如와 心生滅의 뜻이 서로 다른 것을 非一이라 하고 또 不生滅의 心眞如 自體가 起動해서 生滅差別의 諸法을 나타냈기 때문에 心眞如 밖에 生滅의 諸法이 따로 없고 또 生滅 밖에 不生滅의 心眞如가 따로 없는 것을 非異라 하였다. 眞如와 生滅과의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물과 파도의 관계와 같다. 大海의 물이 바람에 의하여 출렁거려 파도가 되었을 때 水相과 風相이 서로 여의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非異의 뜻이다. 즉 파도를 여의고 물이 있을 수 없고 물을 떠나 파도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물과 파도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非一의 뜻이다. 이상의 물과 파도의 비유와 같이 妥인 生滅과 眞인 不生滅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아니한 것을 阿黎耶識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起信論』에서는 現象界諸法의 緣起의 근원을 眞妄和合識인 阿黎耶識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起信論』에서 眞如緣起說이라고는 하나 이 阿黎耶識을 緣起의 단서로 한 것은 不變의 眞如가 직접 生滅의 諸法을 연기하기 곤란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듈다. 그러면 이 阿黎耶識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現象界의 諸法을 연기하는가에 대해서 『起信論』에 「此識有二種義能攝一切法生一切法<sup>15)</sup> 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sup>16)</sup> 이라고 설하고 있다.

이 阿黎耶識이 능히 萬法을 含攝하고 능히 萬法을 발생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能攝能生의 두가

지 힘이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아뢰야식에 覺과 不覺의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표명하였다. 覺은 覺照, 覺察, 覺明등의 뜻으로 즉 眞如의 體를 깨닫는 智慧를 말하고, 不覺이라 함은 覺과는 반대로 생멸의 이치를 미혹하고 眞如의 體를 깨닫지 못하는 無明을 말하는 것이다. 阿黎耶識 가운데 不生滅의 眞如體는 覺義에 해당하고, 生滅의 妥染性은 不覺義에 해당한다. 阿黎耶識으로부터 諸法이 연기한다는 것은 곧 이 不覺義가 발전하여 千變萬化한 染法의 迷界가 전개된다는 것이요, 반면에 不覺을 타파하고 眞如本來의 覺體를 깨달으면 清淨無垢한 淨法의 悟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前者를 生滅流轉門이라 하고 後者를 眞如還滅門이라 한다. 이와 같이 迷悟染淨의 諸法은 一法도 이 阿黎耶識 중에 갖추어 있지 않음이 없으므로 染法緣起와 淨法緣起가 함께 이 아뢰야식을 근원으로 하는 淨法을 섭하고 不覺義는 染法을 섭한다는 뜻이며 「生一切法」이란 뜻은 阿黎耶識이 一切諸法을 능히 생기시킨다는 것이니 이로써 眞如緣起說에서 阿黎耶識의 중요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起信論』에 靜과 動, 즉 不生滅과 生滅로서 迷悟, 染淨, 覺不覺을 분류하였으니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一心	動—生 靜—不生滅	減—迷	染—是曰不覺義 悟—淨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호에 계속-

15) 大乘起信論 海東元曉疏 卷二 12下 3行.

16) 大乘起信論 海東元曉疏 卷二 14下 9行.

## 신통묘용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종희 / 사교과

'땅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그 땅을 딛고 일어서야만 한다.  
만약 그 땅을 떠나서 일어서려고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은 『정혜결사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미혹하여 번뇌를 일으킨 자는 중생이요,  
그 마음을 깨달아 무한한 신통묘용을 발휘하는 이는 곧 부처님이시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이 그 땅을 떠나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을 여의고는 부처님을 구할 수 없다."

대중스님!

매일 내 마음의 무한한 신통묘용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내 마음은 여의고 저 대웅전 법당에 계신 불보살님만 신통묘용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끔 우리는 도반스님과 뜻하지 않은 일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서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고, 사소한 의견 다툼은 어느새 묘한 신경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서로간의 좋지 않은 감정들을 금방 풀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는 그 스님을 이해하거나 용서하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 담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스님과는 후원소임 아니면 경상 짹지 또는 참 당번 짹지까지 서로 부딪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아 있던 마음 속 그 앙금들은 이렇게 같이 소임을 살면서 사소한 신경전에서부터 그 스님에 대한 이유 없는 불평과 불만으로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마음이 이러니 소임 내내 서로가 편치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돌려 그 상황과 그 스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괴로움을 주는 경계도 결

코 괴로움이 아니거나와 미운 사람도 정말로는 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상 경계가 본래 그 자체로 괴로움이라든가 미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려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괴로운 상황이고 내게 미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의 『용서』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 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다.”

이처럼 어떤 경계에 대한 나의 분별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그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내 마음의 평화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텐진빠모 스님이 운문사에 방문해서 하신 말씀 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Ok도 Ok이고 Not Ok도 Ok”라고 말입니다. Not Ok를 Ok라고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거스르는 그 어떤 경계에도 Ok라고 긍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상대와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면 그리고 그 경계들에 대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무엇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온갖 시비분별과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우리지만, 맑고 밝고 또 향기롭게

그 마음들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통묘용한 마음의 힘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디 우리 마음의 신통묘용함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지심귀명례 - 정성스럽게 예불 모시는 그 마음이, 그리고 대중스님들의 맛있는 공양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양 짓고 국 끓이는 모습이, 머터러운 스님의 모습 역시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매일 발휘하고 있는 신통묘용한 마음의 힘일 것입니다.

『능엄경』에 ‘거니순수(去泥純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분별 망상의 찌꺼기가 사라져 정말 청정한 빛을 발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참다운 지혜의 상태이며, 최상의 열반이고, 또 우리가 맛볼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대중스님!

매순간 내 마음의 무한한 신통묘용함을 여의지 않는다면 이 최고의 기쁨 또한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긴 가을철 건강 잘 다스리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

# 대혜『서장』의 日用禪<sup>1)</sup>에 대한 고찰

경석 / 사교과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대혜 이전의 일용선
3. 대혜의 『서장』에 나타난 일용선
4. 대혜 일용선의 특징
  - 1) 목조선 비판
  - 2) 간화선과 無字화두
5. 대혜의 일용선이 미친 영향
6. 맷는말

### 1. 들어가는 말

문명과 과학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 준 반면 그로 인한 자연의 파괴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인간 또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소외 현상, 학교와 가정의 폭력, 자살 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또한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神에 대한 존재를 믿기보다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공허하게 사는 자신의 마음을 깨쳐 참나를 알아 행복을 추구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불교는 이런 현대인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 줄 수 있는 종교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자라고 하는 일반신도들 조차도 수행이란 조용하고 고요한 산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불교의 이해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커져서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장』을 통해 대혜선사가 사대부들을 위해 日用處 즉, 가고, 머물고, 눕고, 앓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가운데 수행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일용선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흐름과 『서장』에 나타난 일용선의 특징, 그리고 일용선이 미친 영향을 고찰해 볼으로써 현재 우리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 2. 대혜 이전의 일용선

대혜선사 이전의 日用禪을 뒷받침하는 사상을 법맥을 따라 짚어보자면, 육조혜능까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육조단경』<sup>2)</sup>에서 혜능이 말하는 일행삼매란, 일상의 행주좌와에 늘 直心을 행하여 일체 범에 짐착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즉, 고요히 앉아 수행하는 것 만이 선정이 아닌 것이다.

육조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선사상은 마조의 平常心是道 란 어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마조의 선에서 佛心 즉, 깨달은 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平常心인 것이다. 『전등록』 28권 '마조 도일(709-788)의 示衆'에는 다음과 같이 설해져 있다

"道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되

1) 본고의 제목 중 '日用禪' 이란 단어는 대혜선사의 선사상을 대표하는 말로써, 동국대 불교학과 백옥수, 「대혜의 일용선 연구」(2004 불교학 결집대회 발표논문)에서 밝힌 것이다.

2) 『육조단경』(대장장 48권, 338中).

지 않도록 하라. … 다만 지금의 行住坐臥와 환경에 순응하고 사물에 접하는 것이 모두 바로 道이다.”<sup>3)</sup>

마조는 道란 조작과 分別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 이 아니고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작위성이 없는 근원적인 마음인 보통의 평상심이 곧 부처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마조의 사상은 그의 제자 백장 회해(749-814)에게 전해져 「一日不作一日不食」을 주장함으로써 노동과 수행을 동일하게 취급했으며<sup>4)</sup>, 임제 의현 (?-866)의 隨處作主 立處皆眞'에 의해 일용선 사상은 더욱 구체화되어 간다. 이러한 대혜선사 이전의 일용선을 뒷받침한 사상은 대혜선사에 이르러 구체적인 수행방법이 제시됨으로써 꽃을 피우게 된다.

### 3. 대혜의 『서장』에 나타난 일용선

송대의 불교가 유교적 영향을 받아 현실적 경향을 반영하게 되고, 대혜 이전의 일상성을 중시하는 흐름과 연관되어 물을 길고, 땀감을 하는 것도 모두 신통묘용이라는 가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쁠 때나 화날 때,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 사무 보고 가사 돌보는 곳 등이 다 공부하기 좋은 곳이며 살펴 점검하는 시설인 것을 대혜는 '日用應然處'란 말로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그의 일용선 사상은 『서장』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증시랑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평소에 마음을 아주 고요한 곳에 머물게 하 는 것은 단지 시끄러운 가운데 사용하기 위함 뿐이다. 만약 시끄러운 가운데 힘을 얻지 못 하면 도리어 일찍이 고요한 가운데 있어서 공 부를 짓지 않음과 같다.”<sup>5)</sup>

송대나 지금이나 고요한 곳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려는 대혜스님의 말씀이 다.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화두를 들어 공부한 다면 조용히 좌복 위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천만 억 배 더 뛰어난 것이다.

또한 진소경에게 답한 편지에

“옛날 위부의 노화엄께서 말씀하시길 ‘불법 이 일용처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곳과 말로써 서로 문답하는 곳과 짓는 일과 해야 할 일에 있으니, 마음 을 들고 생각을 움직이면 또한 도리어 옳지 못하리라’고 하시었으니, 그런 까닭에 피하여 습으려 하나 피할 수 없는 곳을 당하여 간절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점점하 려는 생각 짓기를 꺼릴지어다.”<sup>6)</sup>

평상시 생활하는 모든 경계는 피하려고 하나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일상 생활하는 그곳이 바로 공부처인 것이다. 또 유통관에게 답한 편지에

“홀연히 옛 습관들이 별안간 일어나더라도 또 한 마음을 써서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다만 별안간 일어나는 곳으로 나아가 화두를 看하되 ‘개에게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주스님이 ‘없다’라고 하면, 바로 이어할 때에 붉은 화로 위에 한 점의 눈과 같으리니, 눈으로 판단하고 손이 친숙한 것을 한번 뛰어넘어 초월해야만 바야흐로 나庸이 말씀하신 흡흡<sup>7)</sup>히 마음을 쓸 때에 흡흡히 마음 없이 씀이니, 넌지시 하는 말은 이름과 모양이 수고롭고 곧은 말은 번거롭거나 중복됨이 없음이라.”<sup>8)</sup>

3) 『경덕전등록』 28권 (대정장 51, p.440上). 4) 『선의 역사와 선사상』, 정성본, 삼원사, 1994.

5) 『서장』, 대혜 종고, 조계종 출판사, 2004, p.44. 6) 上偈書, p.103.

7) 怡俗이란 일부러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여서 현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無心으로 경계를 대하는 것이다. 8) 上偈書, p.130.

하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화두를 들면, 일어나는 망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진다고 하시면서 화두는 모든 망상을 녹이는 화로와 같은 것이니 그저 화두 드는데 힘쓸지언정 고요하고 시끄러움에 연연치 말라 하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혜선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용선을 너무도 간절히 주장하시면서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깨달음의 희망과 수행의 힘을 한껏 높여주어 당당한 불교인이 되게 하는데 큰 몫을 하셨다.

#### 4. 대혜 일용선의 특징

##### 1) 목조선 비판

대혜선사는 『서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教示에서도 끊임없이 목조선을 향한 비판을 하고 있다. 『서장』에서 목조선을 비판한 내용 중 큐보학에게 보낸 답서를 살펴보면,

“근래 선법이나 불법이 쇠퇴하고 있다. 杜撰의 장로들은 원래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業識이 망망하여, 어떤 의지처와 아무런 착실한 방편도 없이 수행자들을 받아들여, 모두들 자기처럼 함함한 곳에 몰아놓고 눈을 꼭 감개하고 있다. 이를 일러 묵묵히 하여 항상 비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9)</sup>

즉, 눈을 감고 좌선하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다. 눈을 감고 참선하게 되면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心識이 잠시 쉬어 안정된 것 같지만, 방선하고 나면 마치 풀을 덮어 놓았던 돌을 치운 것처럼 그 풀이 다시 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과 같이 분별심이 더 치성하다는 것을 주의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비판은 조

태위의 답서, 부추밀의 답서, 장사인의 답서 등에서 보이는 것 이외에 『서장』의 도처에 산재해 있다.

##### 2) 간화선과 無字화두

간화선은 말 그대로 ‘화두를 본다’는 의미이다. 옛 조사들의 깨닫게 된 기연인 공안을 참구하는 새로운 선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10)</sup>

대혜선사 당시에도 수많은 공안이 나왔다. 그러나 대혜선사는 옛 조사의 연구를 통해 본래심을 자각하지는 않고, 문학성과 언어문자를 사량 분별로써 해아리는 것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고 스승의 저서인 『벽암록』까지도 태워 버리고 공안선을 다시 조직하고 대성하였다. 선을 ‘無’의 철학으로 새롭게 전개해 이 ‘無’를 일체의 사량 분별을 막는 ‘절대의 無’로 보고 간화선을 확립하게 된다. 즉, 공안은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의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無’자를 채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장』에 나타난 화두 중에 조주의 방하착(放下着)이 7번, 운문의 수미산이 6번, 일구흡진서강수화(一口吸盡西江水話)가 2번, 간시궐화(乾屎涚話)가 8번, 동산수상행화(東山水上行話)가 1번, 그리고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가 33번이나 인용되는 것을 보아도 그가 無字話頭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5. 대혜의 일용선이 미친 영향

당시 송대의 사대부는 선사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출가하지 않더라도 거사로서 열정적으로 선 수행에 나아갔다. 따라서 세속의 정치적, 현실적 위기 상황에서도 참선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대부를 위한 수행체계론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부와 밀접한

9) 上偈書, p.119.

10) 『선의 역사와 선사상』, 정성분, 삽원사, 1994.

관련을 갖고 있던 대혜선사는 일용선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대부의 현실적 요구와 성향을 충분히 감안하였을 것이다. 그 예로 『서장』은 2명의 승려를 제외한 40명 이상의 사대부와의 교류를 통해 선 수행의 요지를 지도하는 데서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대혜선사는 평소 知見 있는 사대부들에게 깨달음을 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병폐가 되며, 무엇보다 결정적인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대부의 세속적인 생활과 선 수행이 현실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조주의 ‘狗子無佛性’ 화두를 그대가 마치 도적을 잡음에 이미 습은 소굴을 알고 있으나 다만 아직 잡지 못함과 같을 따름이니, 청현 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조금도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때때로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곳과 보고, 읽고, 기록하는 곳과 仁·義·禮·智·信을 닦는 곳과 존장을 모시는 곳과 학자를 提盜해 가르치는 곳과 죽을 먹고 밥을 먹는 곳을 향하여 더불어 거론다면, 훌연히 謩心을 쳐서 깨뜨릴 것이니 대저 다시 무엇을 말하겠는가?”<sup>11)</sup>

이렇듯 대혜선사는 사대부에게 현실생활 중에서 부지런히 실천하여, 출가하지 않아도 능히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현실적인 입장과 요구에서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6. 맷는말

이제까지 살펴 본 대혜선사의 일용선은 절대로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 수행은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혜선사는

일체의 분별심과 차별심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화두를 참구하여 일체 사랑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근원적인 자기의 本來心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대혜선사가 활동하던 당시의 사대부는 아는 것이 많아서 굳건한 신심을 내기도 어렵고, 그것으로 인해 깨닫기도 어려웠다. 그리하여 대혜선사는 화두를 看하면서 알음알이나 문자, 언어의 길 위에서 인정하려 하지 말고 그저 간절한 의심으로 공부하되 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그 공부처를 가리지 말고 속세를 떠나야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렇듯 대혜선사의 일용선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정신적으로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밥 먹고, 일하고, 말하는 모든 행위들이 수행 아님이 없음을 인식시켜 지혜로운 삶을 영위케 하는 수행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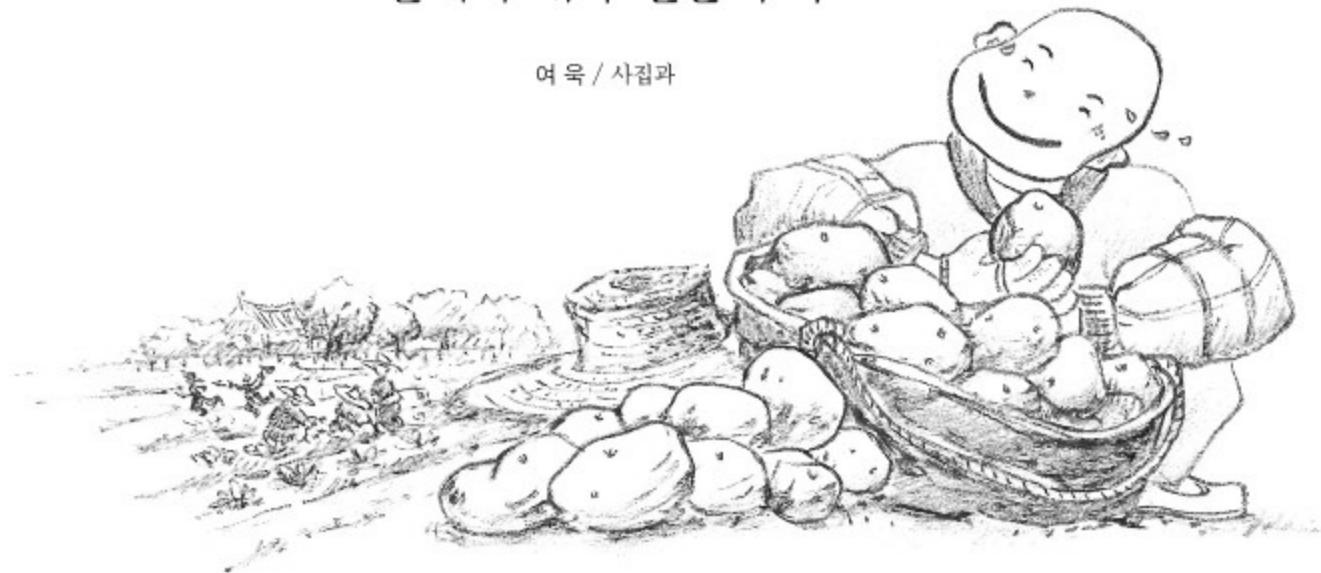
## 참고 문헌

- 『서장』, 대혜종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2003.
- 『합본 선요·서장』, 탄허 현토, 도서출판 교림, 1994.
- 『선의 역사와 선사상』, 정성본, 삼원사, 1994.
- 『목조선 연구』, 김호귀, 민족사, 2001.
- 『간화선』, 원용, 장경각, 1993.
-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 김태완, 장경각, 2001.
- 『고려후기 간화선의 수용과 전개』, 조명제,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학위 논문, 2000.
- 『대혜 종교의 목조사선 비판에 대한 소고』, 유진, 승가 16호.

11) 『서장』, 대혜 종교, 조계종 출판사, 2004, p.206.

## 밭에서 내가 얻은 수확

여 육 / 사집과



### 《2006年, 청풍료 용상방》

자색(煮色) - 치문반 일동

원두(圓頭) - 사집반 일동

절집 용어에 익숙하지 않던 행자 시절,  
윤문사 작은 달력 속에 밭을 매는 스님들의 모습은 한 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2006년, 여지없이 다가온 원두반의 여름!

추억의 달력처럼, 우리는 온통 비 오듯 흐르는 땀과 흙냄새로 달력 속의 모델이 되어갔다. 가지런히 밭을 갈아 고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강렬한 태양 기운을 받아 튼실 튼실 자라난 농작물을 수확하고… 원두반의 묘미가 이런 것일까?

그러나 계속되는 짬통같은 무더위 속에 우리 원두반들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로 숨이 턱턱 막히던 어느 날, 거름 뿌리기 울력이 있었다.  
종각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여러 자루의 거름 포대, 포대를 뜯는 순간,  
“윽! 냄새!!! 엄청 지독하네!”

억지로 숨을 참아가며 거름을 대야에 나눠 담고 고랑마다 차례로 서서 골고루 뿌리기를 얼마나 지났을까? 장난기 있는 스님이 부반장스님을 겨냥해 거름을 던졌다.

“내 똥 받아라!”

도망가던 부반장스님은 급기야 날아오는 거름을 대야로 막고 반격을 했다. 거름은 도망가는 스님에게 적중해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주위에 있던 우리는 순간 거름 냄새도 잊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냄새나는 거름을 손으로 만지며 웃다니…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이것은 그냥 거름이 아니었다. 작게는 고추며 오이, 호박 등 여러 야채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크게는 도반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편한 일 없나, 쉬운 일 없나?’ 하고 나태해지는 나를 보았을 때, ‘심은 대로 나고 가꾼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맛보게 해준 밀거름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애쓰는 과정이 없다면 어찌 풍성한 수확을 기대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흙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씩 알아갈 즈음, 난 우리의 땀으로 자란 채소가 공양상에 오르는 걸 보며 변해가는 자신을 보았다.

아침 밭우상!

쑥갓 반찬이 나오면 속으로 투정을 부리곤 하던 내가 ‘과연 내가 이 공양을 받을 만한가?’ 생각하기도 하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선사스님의 말씀이 떠올라 서둘러 분에 넘치는 공양을 덜어내기도 하니 말이다.

이처럼 땅은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을 성숙시킬 기회를 주는 소중한 공간이니 어찌 그냥 땅일 수 있겠는가?

이제 원두반의 의미를 조금 알게 되고 밭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려니 벌써 높은 하늘과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는 가을이라고 나를 깨운다.

우리가 佛種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무엇을 거름삼아 결실을 맺을까?

강원생활의 순간순간이 어떤 결실을 맺더라도 좋은 거름이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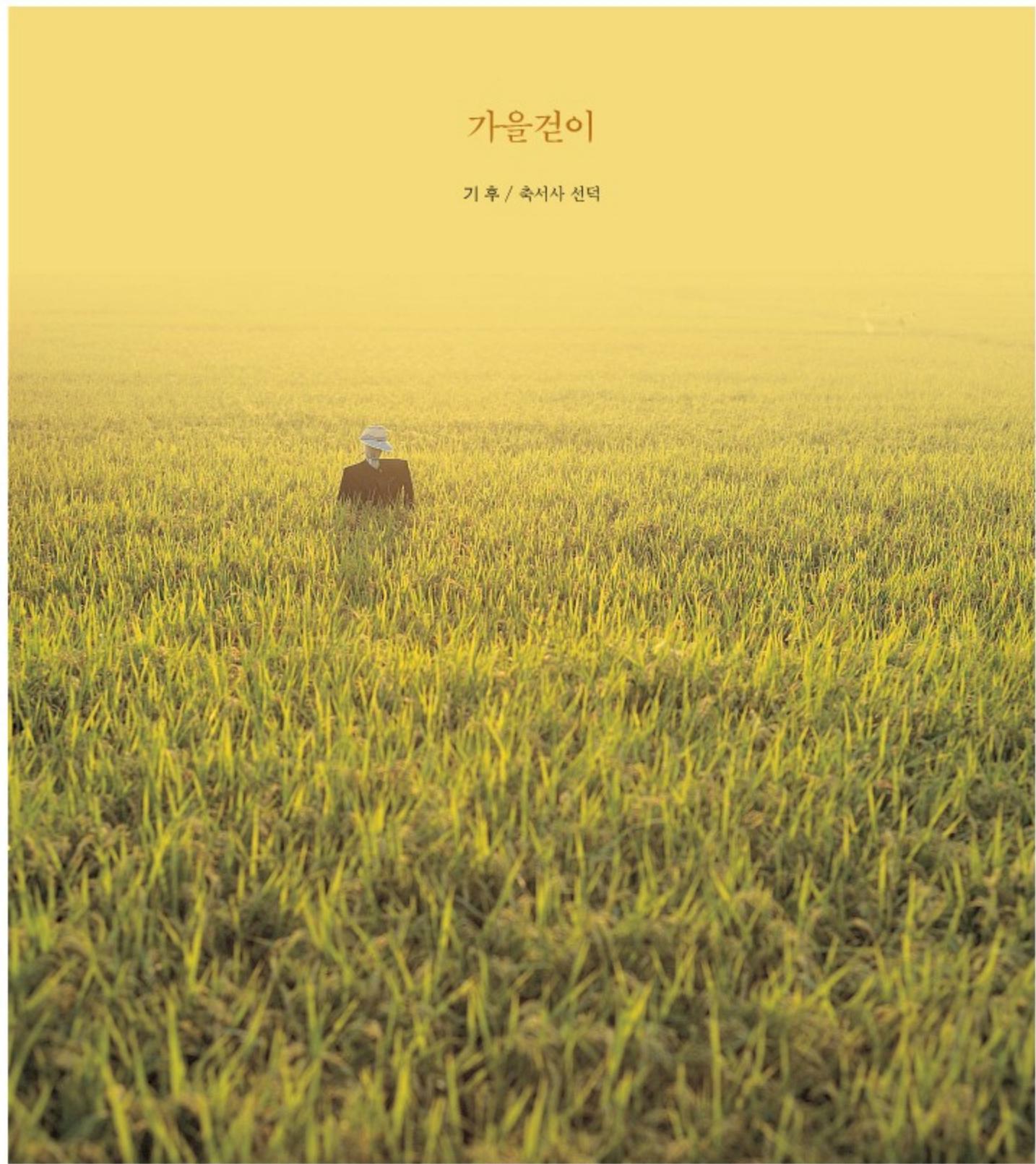
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여느 때와 다르게 가볍다. ☽

안락한 줄 아는 사람은 누구?  
밀밭에서 누워 차도 오히려 편안하고.  
안락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살 수도 역시 막을이 흡족하지 못하니라.  
그대에서 안락한 줄 모르는 사람은  
내놓 부지하고 기실 가난한 것이다.

- 불유교경 -

## 가을걷이

기후 / 축서사 선덕



새털구름 사이로 고추잠자리가 떼를 지어 날기 시작하더니 이내 까실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간다. 산자락에 기대어 세월을 삭히는 沙門들 역시 이런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마음은 이미 결망 속을 넘보며 주섬주섬 행장을 챙긴다.

뒤돌아 볼 아무런 부스러기도 남기지 않은 채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훌쩍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납자의 살림, 승려의 멋은 그런 구애 받지 않는 자유에 담겨 있다. 3개월을 새 터에서 꽂꽃하게 지내다가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서기 전날, 삭발에 새 옷을 입고 삼삼오오 짹을 지어 달빛을 밟으며 담소하는 山人們의 한가로운 모습. 한 철의 정진은 오로지 해제날 하루를 위해서 고스란히 몸 바친 듯, 새 곳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은 늘 그렇게 신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곧, 있던 곳이 더 좋았다는 후회를 늘 하게 되면서도 그 버릇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다. 역마살을 짙어지고 다니는 떠들이 버릇이 몸에 밴 탓이리라.

이렇듯 운수객의 농사는 떠나면서 복돋우고 들어가선 김을 매는 마음 농사이다 보니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가을걷이를 해야 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사실 이 농사만큼 가변적 수치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경우도 드물다. 잘하면 빈털터리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어 주야로 태평기를 부르기도 하지만, 아차하면 쪽박도 못차고 빛쟁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가을걷이 작황은 진정 어느 정도의 눈금에 와 있는가?

석양이 바라보이는 황량한 가을 들판에 주저 앉아서 스스로의 모습을 응시한다. 사명대사처럼 신통술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멋진 승려가 되어 보겠다고 검정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 농장에 들어온지도 벌써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다. 난 그동안 혼히 해오던 유행적 작목도 해 보았고, 특수업종(목언,

해외포교)에 손도 대 보았으나 끝내는 어중쟁이 농부로 전락하여 반 타작도 힘들게 되고 말았다.

가을의 문턱에 기대어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첫째는 자신의 능력에 반하는 과잉 중복투자로 이런 저런 분야에 손을 댄 자기 과시적 허위 의식으로 인해서 체력 안배에 실패한 것이고, 둘째는 기본 지식과 부족한 정보로 말미암아 해당되는 분야에 만족스런 흥미를 못 느끼다 보니 이리저리 기웃거려서 한 곳에 오롯이 하지 못한 끈기 부족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오한 책임경영의 허술함이었다.

행자 때 세시간에서 벌건 모습의 틀니를 사발에 담가 씻고 있던 원경 노스님의 초라한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저런 어설픈 승려는 되지 않겠노라고 속 다짐을 했건만 어느새 자신도 아래는 네 개를 심었고 위에는 틀니를 해서 이따금씩 발음에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또 병원 출입을 자주 하던 젊은 승려들을 보고는 뭔가 수행을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겠지 하면서 은근히 내려다보곤 했었는데, 지난 해 나도 느닷없이 배에 칼을 대고 난 후 천하에 중환자로 소문이 나서 중요 모임에 불참을 해도 수술환자로 참작한다는 딱지를 달게 되었으니 나의 가을걷이는 씨나락 값도 못 건지게 생겼다.

홍보면서 닦아간다는 옛말처럼 삶은 그렇듯 겉모양만 다를 뿐 속살이는 같은 통로를 지나가는 동업중생의 긴 여정이던가? 그렇다고 넉을 놓은 채로 폐농에 따른 자신의 초라한 몰골만을 바라보며 손을 놓고 한숨만 짓는 것도 우습고 어디론가 꼭꼭 숨어서 일념속에만 남아있는 영상적 존재가 되고 싶어도 대명천지에 몸 말길 곳도 또한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손발을 걷어 부치고 새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철저한 구상으로 준비를 톡톡히 해서 여봐란듯이 다음 농사를 잘 짓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도 이 마음 경작은 찰나에도 수없이

최신 우량 품종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전천후 다모작이다 보니 정신을 바짝 차려 한 생각을 경영만 잘하게 되면 내년 가을엔 휘파람을 불면서 새 낫을 들고 황금 들판에 성공한 농부로서 당당히 나설 수가 있는 신기법 영농이니 천만다행이 아닌가?

어떤 농사건 종자가 좋아야 열매가 실할 수 있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우랑한 마음씨를 얻어 잘 보관하기 위해선 언제나 선근을 심고 부지런히 복덕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엔 닦지 않고 맑아질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린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이 좋은 땅의 선택과 때를 맞추어 비료와 약을 주고 깁을 매며 흙을 북돋아 주는 일이다. 수행하는 도량을 슬기롭게 선택하고 올바른 스승과 도반 등을 잘 만나야 마음 농사는 힘을 덜 들이고도 잘 지을 수가 있다. 주인을 잘못 만난 머슴은 농사일에 많은 애로를 겪게 되며 약을 뿐이고 비료 등을 주어야 할 때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순식간에 논밭에 잡초가 활개를 쳐서 참곡식은 뿐만 남긴 채 긴 장마의 고랭지 배추처럼 흐물흐물 녹아 내린다. 그리고 이 농사는 한곳에서 오래 짓게 되면 고추처럼 탄저병이 생긴다. 때문에 얼굴이 익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될 때쯤, 새벽 일찍 걸방을 메고 혼자서 일주문을 나서는 것이 실속 있게 마음 밭을 일구는 사람들의 오계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많이 알면 말이 많고 낮이 익으면 인정에 끌려서 자칫하면 떡잎에 나쁜 벌레가 붙어서 야금야금 먹여먹는 줄도 모르고 희희낙락 서로가 맞장구를 치면서 세월만 녹이게 된다. 그러기에 한철이 지나면 얼른 36계를 놓을 일이다. 마치 한바탕 멋지게 노래 한 참 매미가 오줌을 싸버리고 다음 나무로 잽싸게 옮겨 가듯이 …

그 다음이 참 도반의 만남과 거래인데, 이는 수행자에게는 진실로 오아시스 같은 소중한 존재이다. 피차 가슴을 열고 서로 공부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해와 신뢰가 쌓이고 그를 바탕으로

修道의 자양분은 날로 깊게 쌓여간다. 그 마지막이 영농 전반에 대한 세밀한 기법의 습득과 그에 적합한 작목의 선택이다. 오랜 경험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인해서 결정해야 되는 이 문제야말로 결정의 두 가지 전제조건이 미성숙한 초보 경영인에겐 가장 크고도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 밭 경영을 시작해야 하고 또 갖은 정성을 다해서 위에 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 가면서 바지를 걷어 부치고 논밭에 들어가야 한다. 어쨌건, 沙門은 그 누구의 만류도 뿐리치고 우리 스스로가 이 농장에 밭을 담근 이상 마음 농사에 대한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떠안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한층 더 결정에 신중하고 그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검증하는 사유의 넉넉한 공간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수년 전 청계천에서 여러 종류의 가게를 경영하다가 끝내 실패하고 입산해서 6년을 나와 함께 살며 묵언하던 어떤 승려가 어느 날 내 옆방에서 어떤 청년에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공거리며 정열적으로 써 보이던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난 내심 실소를 견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 자신의 모습이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일까?

지혜와 성실로 농사를 잘 지은 이들은 탐스럽게 고개 숙인 가을 들판에 나서면 먹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 불러 그저 묵연히 미소만 짓는다고 했는데, 견을 것도 없는 폐농인이 자신의 허기를 못 견디고 그저 횡설수설 농사 잘 짓는 법에 대해서 허튼 소리를 하고 말았다.

아마도 밝은 햇살과 청량한 가을바람이 합세해서 나의 심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에 그 상큼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을걷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토해 내게 했으리라. ☽

## 손톱 위의 풀

편집부

어느 날 마을의 춘장이 부처님을 찾았다.

그때 부처님이 손톱으로 풀을 조금 집어들고는 춘장에게 물었다.

“춘장아, 내 손톱 위의 풀이 많을까, 아니면 서 대지의 풀이 많을까?”

춘장이 대답했다.

“손톱의 풀은 너무나 적고, 대지의 풀은 산뜻없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춘장에게 말했다.

“그렇다. 춘장아, 쉽없이 자인된 마음을 뺨아 악한

사람은 손톱 위의 풀처럼 언제든 악한 일을 턴에 버틸 수 있다.

그리므로 그는 나쁜 뜻에 빠지지 않고, 나쁜 뜻에 떠들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렇자 못한 사람은 대지의 풀처럼

제어할 수 없는 악함을 품어진다.”

『장야암경』권 15

## 망상 내지 마라… 할!

- 서옹 큰스님 -

등 광 / 사미니파

2003년. 그 해는 유난히도 많은 큰스님들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해이다.

서암 큰스님을 비롯해 청화 큰스님, 관옹 큰스님  
그리고 서옹 큰스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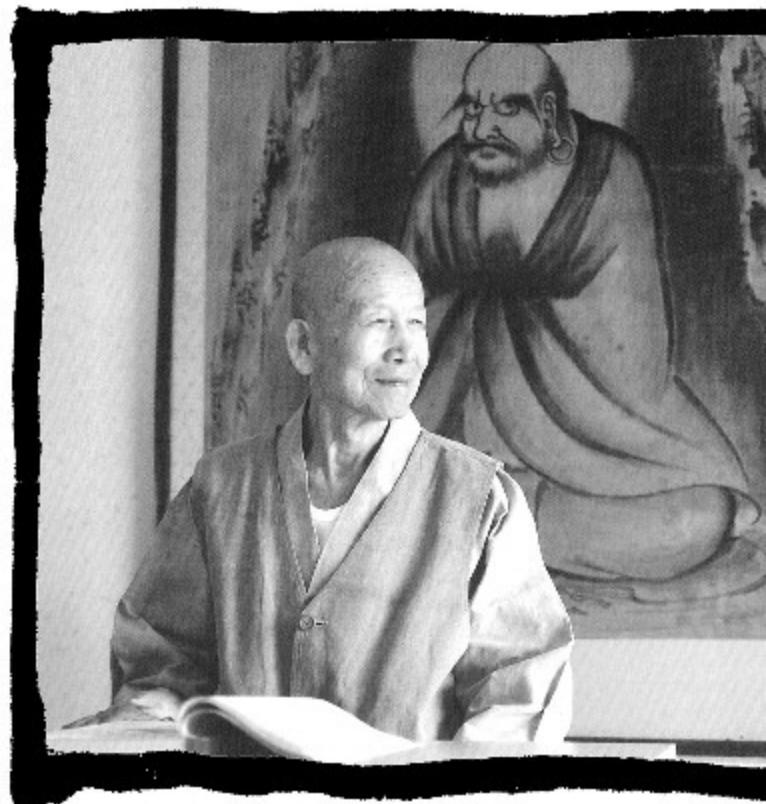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듯. 서옹 큰스님은 나를 출가의 길로 이끌어 주신 등대이자, 나침반과 같은 분  
이셨다.

“부처님 밥도 맛있어, 넌 부처님 밥 잘 먹겠어”라는 말씀 한마디에 갈팡질팡, 허우적거리던 나의 마음은  
죽비 한 대 세계 맛은 듯 출가를 결심하였다. 2003년 12월 13일 스님의 열반 소식과 큰스님의 사리를 친견  
하며, 부처님 열반을 무척이나 슬퍼했을 아난의 마음처럼 눈물을 흘렸다.

서옹 큰스님(1912년~2003년). 1932년 양정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백양사에서 만암 대종사  
를 은사로 득도 수계. 1600년 한국불교 선종사의 맥을 잊고 대한불교 조계종 제5대 종정과 고불총림 방장  
을 지내시며 제방 선원 수행자들의 바른 안목을 깨우쳐 주신 이 시대의 큰 스승이셨다.

불교 신자들 사이에 스님은 93년 시작한 ‘참사람 운동’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스님은 “우리 인간이 이대  
로 가다가는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 모두 佛法으로 돌아가 자유자재한 ‘참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역사를 바르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시며, 또 “인간이 본래 지니  
고 있는 참사람의 성품을 발견할 때 갈등과 투쟁은 사라지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서로 존중하는 평  
화로운 세상, 곧 佛國淨土가 열린다”고 설법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공부하는 납자들에게 참선을 강조하셨는데, 참선이 가장 쉬우면서도 올바른 수행법이라고 주장하  
시면서 최근 우리 불교계에 들어오고 있는 다양한 수행체계에 대해선 우려를 하기도 하셨다. 스님께서  
1998년에 ‘깨달음의 실체가 있느냐’는 주제를 놓고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無遮禪會(신분에





관계없이 깨달음을 논하는 법회)'를 백양사에서 개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 무차선회에서 전해지는 스님의 일화가 있다.

전국 각처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방 수좌들이 모인 자리.

여러 스님들과 서옹 큰스님과의 선문답이 오가는 도중 한 스님이 뜬금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께 “스님은 대도적이십니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큰스님께서는 주장자를 한번 바닥에 턱 내리치시더니 “망상 내지 마라. 할!”이라고 답하셨다 한다.

‘도적’이란, 선의 깊은 경지에 이른 선지식을 말한다. 대도적이란 아마도 큰스님의 깨달음의 자리가 그만큼 높았음을 얘기했으리라.

스님의 열반도 평범치 않다. 열반 직전에 시자인 호산 스님과 두백 스님(백양사 주지스님)과 오묘한 내용의 선문답을 주고받는데, “호산(湖山)! 호산! 동서남북에서 눈 밝은 사자새끼가 나온다. 동서남북에서 용맹스런 사자가 나온다. 호산! 속히 일러라!” “……” 스님은 이어 “이제 가야겠다”며 큰 숨 한번 들이쉬고는 坐脫入亡(앉은 채 열반에 들) 하셨다.

이렇듯 한평생을 선풍 진작과 납자 제접, 그리고 인류구원의 새로운 사상적 대안으로 참사람 실천 운동을 제창해 오신 스님은 2003년 12월 13일 세수 92세, 법랍 72세를 일기로 스승이신 만암스님의 모습처럼 결기부좌하신 채 고불총림 백양사 설선당 염화실에서 입적하셨다.

출가 전부터 큰스님 뵈려 자주 갔었던 백양사. 스님 가시기 전까지 스님을 뵈려 갈 때면 내 손엔 언제나 재래시장에서 파는 양말이 든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다. 다른 여느 값나가는 공양물을 드리면 싫어하시고 야단을 치시던 스님께서 재래시장표 양말만은 빙그레 아이처럼 웃으시며 받아주셨는데 …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평소 같은 물건은 절대 두 개씩 두지 않으셨던 검소하고 소탈한 모습의 큰스님 가르침이 생각나 아직도 목이 마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불리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 큰스님.

죽음에 이르러서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결기부좌 하고 계셨던 모습과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물 향아리 속에 출현한 사리는 이 세상을 떠도는 천 마디의 빛나는 말보다 더 큰 사자후가 되어 지금도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선의 목적은 자신이 자비심이 있는 참사람임을 깨닫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자재한 참사람임을 깨달아 세상을 두루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어지러운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운문에 해는 긴데 이르는 사람 없고  
백운산정에 눈이 분분하네.  
한번 백학이 나르니 천년 동안 고요하고  
솔솔 부는 솔바람 붉은 노을을 보낸다.

- 서옹 큰스님의 열반계 -

## 배아연구와 생명윤리(Ⅱ)

- 불교의 생명관과 살생의 범위 그리고  
배아연구의 바람직한 방향<sup>1)</sup> -

김성철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 … 1. 논의의 전제
- … 2. 문제의 제기
- … 3. 불교의 생명관
- … 4. '인간' 개념과 살생의 범위
- … 5. 인식의 극한에서는 가치가  
존재를 변화시킨다.
- … 6. 배아연구와 그 활용기술의  
바람직한 방향

### 4. '인간' 개념과 살생의 범위

앞 장에서 우리는 佛典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생명의 범위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불전의 가르침에 의거할 때, 식물을 해치는 것은 살생이 아니지만, 인간을 포함한 동물을 해치는 것은 살생이다. 그리고 중생의 범위에는 '중음신이 부착된 수정란'도 포함되기에 인간의 자궁에 착상된 수정란을 해체하는 것, 다시 말해 낙태행위는 분명히 살인의 악업이며 낙태를 요구한 사람이나 시술자 모두에게 미래나 내생의 고통스런 과보를 초래한다.

그러나 시험용기에서 수정란을 해체하는 것 역시 살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시험관아기의 시술을 위해 체외 수정된 후 2~3일 경과한 배아를 5년간 냉동했다가 다시 성장시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살인인가?<sup>2)</sup> 난자와 외과에 체세포핵을 이식하여 유사수정란을 만든 후 이를 성장시킨 배아를 해체하는 것은 살인인가? 불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斷案을 내리려 할 때 우리는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생명과학기술이 개발된 지금의 이 시대에 '사람'이라는 개념의 범위와 의미를 확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살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가치판단>에 대해 이의를

1) 본 논문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은, 필자의 논문인 「생명공학에 대한 불교 윤리적 조망」(『불교문화연구』, 제3집, 경주, 동국대불교사회문화연구원, 2002)과 논평문인 「생명조작」에 대한 토론문(『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심포지엄』자료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인드라망생명 공동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2005년 12월 3일)과 신문칼럼기고문인 「우리가 선도하는 화엄적 기술문명」(『불교평론』, 제23호 권두연, 2005)과 「불교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줄기세포연구」(『불교신문』, 2005년 6월 57쪽, 주)에서 발췌한 것이다.

2) 미리아산부인과가 2000년 8월 성공하여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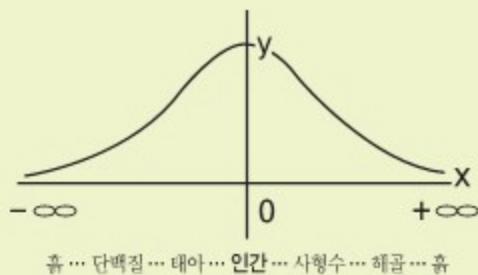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치판단이 '사람'과 '죽음'이라는 개념의 '의미[內包]'와 '범위[外延]'에 대한 <사실판단>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실의 세계에서 '사람인 것'과 '사람 아닌 것', '산 것'과 '죽은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다면 무엇이 살인(殺人)이고 무엇이 살인이 아닌지 쉽게斷案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에 의거하여 누구나 동의하는 생명윤리지침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나 '죽음'이라는 개념의 테두리는 명확하지 않다.

비단 '사람'이나 '죽음'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마', '뺨', '컵', '영웅', '건물', '시계', '우주' 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개념들의 '의미'와 '범위', 즉 '내포'와 '외연'은 실제하는 사실이 아니다. 몇몇 개념들의 범위와 의미는 약속을 통해 결정되지만, 대부분의 개념들은 방치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생명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곤혹스러운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은, 생명윤리의 바탕이 되는 '사람'과 '죽음'과 '삶'이라는 개념의 '범위와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간과 관련된 개념이든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든, 그 어떤 개념이든 그 의미와 범위가 개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마'의 경우 그 범위가 분명한 듯이 생각되어도 그 주변부로 가면 범위가 모호해진다. 관자놀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미간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는 개념은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나 언제까지가 아침인지, 언제부터가 밤인지 원래는 정확한 경계시점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선이 그어지지 않은 시간에 눈금을 만든 후 12시 이전은 '오전 [a.m.]'이고 그 이후는 '오후[p.m.]'라고 명명한다. 이 역시 약속이다. 아침과 밤은 '약속의 선'이 그어지지 않은 개념이지만 오전과 오후는 '약속의 선'을 그어놓은 개념이다.

모든 개념은 '중심부'와 '주변부'를 갖는다. 이마와

뺨과 같은 공간적 개념이든, 아침과 밤과 같은 시간적 개념이든 개념의 '중심부'에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주변부'로 가게 되면 모호함과 혼란이 가중된다. 어디까지가 그 개념의 범위인지 선을 그을 수 없다. 테두리를 두를 수가 없다. 화엄사상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개념은 그 외연이 무한히 열려 있다.<sup>3)</sup> 모든 개념의 외연은 '분포도'를 나타내는 '통계곡선'에서와 같이 점차 희미해질 뿐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윤리적 가치판단을 베아 줄기세포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개념의 외연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다른 모든 개념이 그렇듯이 '사람'이라는 개념 역시 그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그 의미가 희미해질 뿐이다. 위에 그려진 분포도 곡선에서 좌측인 음의 방향으로 갈수록 '태아, 배아, 수정란, 난자, 난모세포, 세포, 단백질…' 등의 상태로 사람의 의미가 점차 흐려질 것이고, 우측인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사형수, 말기 암 환자, 식물인간, 뇌사자, 아직 부패하지 않은 시체, 부패하기 시작한 시체, 해골, 관속의 흙…' 등의 상태로 사람의 의미가 점차 흐려질 것이다. 이렇게 연속된 상태의 어느 지점에 선을 그어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분할 것인지 참으로 애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개념의 '중심부'에서는 무엇이 인간인지 명확한 듯하지만, 인간 개념의 '주변부'에서는 어디까지를 인간 개념의 '테두리(外延)'로 잡아야 할지 애매하다. '배아연구'는 물론이고, '뇌사 판정과 장기기증', '낙태'의 시점 등 생명윤리와 관계된 문제 전반은 이렇게 '인간 개념'의

3) 모든 것이 시계이고, 모든 것이 우주이고, 모든 것이 살이고, … 모든 것이 물질이고, 모든 것이 마음이고, 모든 것이 부처이며, 행주좌와가 모두 선이다. 이는 화엄학(華嚴學)에서 가르치는 일중일체(一中一切) 또는 일즉일체(一即一切)의 이치에 대한 인식론적 조망이다. 하나의 개념(—)은 그 외연이 무한(—切)이다.

변두리, 즉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윤리학자와 종교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상기한 통계곡선이 영원히 'X-축'과 만나지 않듯이, 사람의 범위에 대해 결코 선을 그을 수 없다. 장기이식이나 줄기세포채취 등의 생명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시술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인체' 개념의 하한선과 상한선은 인위적 '약속'에 의해 그어질 수 있을 뿐이다. 상한선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체의 탄생시점'을 의미하고 하한선은 '그 사망시점'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에서 보듯이 인간 개념의 하한선을 보다 이르게 긋는 데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는 반면, 줄기세포연구와 관계된 논란에서 보듯이 인간 개념의 상한선, 즉 시발점을 보다 먼 곳에 그으려고 한다. '부관참시(剖棺斬屍)'가 극형으로 간주되던 '유교(儒教)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과거의 사회에서는 인간개념의 하한선은 무덤 속까지 연장되어 있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의 동의를 얻는다면, 인간개념의 상한선인 '탄생시점 이전의 신체' 와 인간개념의 하한선인 '사망시점 이후의 신체'를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런 행위가 실제로 어떤 과보를 초래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수혈조차 거부하는 어느 종교인들은, 또 부관참시를 정벌로 간주했던 과거의 유교인들은 인간 신체를 다루는 현대 의료인들의 많은 행위를 악으로 생각하면서 그 의료인 자신의 내생, 또는 후손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할 것이다.

인간개념의 하한선인 사망시점에 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심장이 정지되거나 뇌사상태에 빠진 시점'으로 약속하였다. 이 시점 이후의 인체를 장기이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기이식법'이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종교인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거의 모두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sup>4)</sup>

그러나 문제는 '탄생시점'이다. 물론 현재 우리 나라

에서는 '생명공학육성법[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84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1887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부령 305호]' 등의 법령을 통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배아를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들 법령 가운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률'에서 '배아의 생성과 활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조항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3조**(배아의 생성 등) -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 ①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이 도래한 배아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이들 조항에 의하면, 임신목적으로만 배아생성 가능 한데, 이렇게 생성된 배아 중 5년의 보존기간이 지난 것은 '원시선(原始線)이 나타나는 시기<sup>5)</sup>인 14일 이전의 배아'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구와 치료목적

4)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여 뇌사자를 소생시키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간개념의 하한선은 중심부에서 더 먼 곳에 그어질 것이다.

5) 앞으로 문화한 각종 장기의 잠재적 위치가 결정되는 시기.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5년 미만의 배아의 경우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들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이를 보도하는 연합뉴스의 기사이다.

국내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 11명이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법(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31일(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특히 원고인단에는 원고로 참여한 남모, 김모씨 부부로부터 체취된 정자와 난자가 인공수정으로 생성된 2명의 배아들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원고들은 청구서에서 '인간은 수정顆를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만큼 인간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며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은 잔여배아 연구 범위를 대통령령이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백지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제한 없이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법률로 인해 오히려 배아의 생명권 침해 행위가 면죄부만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sup>6)</sup>

원고들이 생명윤리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 이유는, 헌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와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두 가지 조항을 생명윤리법이 어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생명윤리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냉동수정란의 활용은 물론이고, 체세포 복제연구 역시 모두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조언해야 할까? 이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정란 또는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인

간'을 포함하여 모든 '개념'들은 그 주변부로 갈수록 의미가 희미해질 뿐 그 한계선이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사실의 세계'에서 누구나 동의하는 생명의 시작점을 찾아낸 후 그에 근거하여 '인간'의 범위를 정하고, '살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 임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간' 개념의 시발점은 명료하다. 불교의 가르침에 의거할 때, '현생의 시작'은 수정된 난자에 중음신이 부착된 순간이다. 부모가 성행위를 하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중음신, 또는 식(識)이라고 불리는 간다르바가 수정란에 결합되면 수정란은 비로소 자궁 속에서 태아로 자라나게 된다.<sup>7)</sup> 불교 승단의 규범집인 '율장'에서는 수정 이후 그 어떤 단계의 배아라고 하더라도, 이를 낙태시킬 경우 살인이라는 바라이죄(波羅夷 : 승단 죽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sup>8)</sup>

그러면 체외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를 해체하는 것은 살인일까, 아닐까? 또 체세포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를 정상적인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통해 생성된 수정란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세계적 불교이론서인 「구사론(俱舍論)」에서는 부모 교합의 순간에 중음신이 결합되는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도망상에 빠져 해탈하지 못한 중음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경계를 찾아간다. 중음신의 눈은 멀리서도 자신이 탄생할 곳을 볼 수 있다. 자신의 부모가 될 사람 이 성교를 할 때 남자 중음신의 경우는 어미를 향해서, 여자의 경우는 아비를 향해서는 음욕을 일으켜서 수태된다. 이때 남자 중음신은 아비에 대해 여자 중음신은 어미에 대해 즐오심을 일으킨다. 남자로 태어날 중음신의 경우 어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어미의 등을 향해 앉으며, 여자로 태어날 중음신의 경우 어미의 왼쪽 옆구리에서 어미의 배를 향해 앉는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성의 경우, 그 중음신이 원래 모태에 들어갈 때에는 남녀의 성을 갖고 있었는데 태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성으로 변한 것이다.<sup>9)</sup>

6) 연합뉴스, 2005년 4월5일. 7) 대정장1, pp.579~580. 8) 대정장22, p.758a. 9) 『俱舍論』, 대정장29, p.46c.

인간이 사망함과 동시에 다른 모태의 자궁 속에 탄생하는지 아니면 중음신의 단계를 거친 후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음신 역시 별도의 생존단계로 볼 경우 논란은 해소된다. 불전의 가르침에 의거할 때 정상적 성교를 통해 형성된 수정란에 중음신이 부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이러한 수정란과 배아를 해체하는 행위, 즉 낙태는 살인행위가 된다. 그러나 체외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배양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도 중음신이 부착될까? 인공수정 후 자궁에 착상시킬 때 중음신이 부착될까? 아니면 인공수정의 순간에 중음신이 부착될까? 수정된 난자를 할구분하여 여러 개의 수정란으로 만들어 성장시킬 때, 그 수정란의 수와 똑같은 수의 중음신이 각각의 수정란에 부착될까? 현대의 인공수정기술과 관련하여 불전에 언급된 내용이 없기에 이에 대해 답을 하려면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 성교를 통해 자궁 내에 생성된 수정란이나 배아<sup>10)</sup>를 해체하는 것은 살인행위로 볼 수 있지만, 시험용기 속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생성된 수정란이나 배아를 해체하는 것도 살인행위로 볼 수 있을까? 또 체세포 복제를 통해 생성된 배아를 해체하는 것도 살인으로 규정하고서 철저히 막아야 할까? 체세포 복제배아는 정상 수정배아보다 '인간' 개념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역시 자궁에 착상될 경우 성장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수정란의 크기는 뾰족하게 깎은 연필로 씩은 점 하나보다 작은 1/10mm에 불과하고, 유전정보 DNA를 담고 있는 염색체는 그것의 1/10보다 더 작다고 하지만, 그 한 점 속에는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라는 우리의 여섯 지각기관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정보가 내장되어 있다. 화엄학에서 가르치듯이 먼지 한 톨 크기의 공간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격이다. 또 우리가 보기기에 수정란의 크기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시점의 변화에 따라 그 크기는 달라진다. 높은 건물에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개미같이 작게 보인다고 하여 그에 대해 돌을 던질 수 없듯이,

한 점보다 작은 수정란이라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수정란을 다루는 생명공학은 완전히 금지해야 할까? 사실 윤리학자나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명예를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 까다로운 과학기술을 악으로 규정하고 금지시키는 것이라. 그러나 이는 안전하긴 하겠지만 안이한 대처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대과학의 수레'는 전 인류를 싣고 위태롭게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고 있다.

## 5. 인식의 극한에서는 가치가 존재를 변화시킨다.

그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아연구와 불교윤리 사이에는 화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접점도 없는 것일까? 승단의 윤리지침과 생활규범을 정리해 놓은 윤장(律藏)의 가르침을 참조할 때,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윤전(律典)인 『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毘尼毘婆沙)』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문이 발견된다.

어느 날, 사리불이 청정한 천안(天眼)으로 허공에서 벌레들을 보았는데, 물가의 모래알과 같고 그릇에 가득한 졸쌀알과 같이 무변하고 무량하였다. 이를 보고 음식을 중단하여 2, 3일이 지났을 때 부처님께서 식사를 하라고 명을 내리셨다. 무릇, 육안에 보이거나 녹수낭(鹿水囊)에 걸리는 크기의 벌레가 든 물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지 천안에 보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sup>10)</sup>

스님들은 샘이나 냇가의 물을 마실 때 녹수낭이라는 거름주머니를 통과한 물을 마셔야 했다. 벌레를 걸려내기 위해서였다. 벌레가 들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도 마셔서는 안 되었다. 그런 물을 마실 경우 벌레도 함께 먹게 되어 '살생하지 말라'는 계목을 어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경문에서 보듯이 사리불이 천안, 즉 신통력의 눈으로 허공을 보니 온통 벌레로 가

10) 대정장24, p.552b.

특하였다. 이는 세균과 같은 미생물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된다. 음식이든 물이든 무엇을 먹어도 살아 있는 벌레를 함께 먹게 되므로 '불살생계'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벌레를 죽이게 되고, 이를 먹지 않으면 사리불이 굽어 죽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육안으로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모든 벌레의 모습은 사라지며, 사리불은 편안하게 밥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었다. 이 이외에 『근본설일체유부백일갈마(根本說一切有部百一渴磨)』에도 천안을 사용하여 물에서 무량한 중생을 보았으나,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시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sup>11)</sup>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상의 한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 불교윤리적 지침을 마련할 때, 객관보다 주관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사실, '살생하지 말라!'는 계목을 철저히 지키려고 할 경우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발을 옮길 수 없고,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박테리아와 같은 생명체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고 나의 감관을 통해 인식되는 한도 내에서 생활할 경우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마련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이치를 적용할 수 있다.

율장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생성된 수정란과 배아를 해체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난자의 외피에 체세포를 주입하여 만들어낸 '유사수정란'을 해체하는 것을 '인간'을 죽인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인공수정을 통해 만들어진 배아가 5년 보관한 냉동배아보다 '인간' 개념 중심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배경을 갖지 않는 의료인이나 과학자의 경

우 원시선이 나타나는 시기인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기에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에도 임여배아를 성장시켜 제조한 줄기세포주에 대해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체세포 복제를 통해 생성된 배아는 이들이 사용한 배아보다 '인간' 개념의 중심부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덜 일으킨다. 그렇다고 해서 체세포 복제배아에 대해 '인간'이 아니라거나, '생명'이 아니라라고 단언할 수 있다거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를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와 같이 인간 개념의 주변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답을 내려면 그 동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윤리적 가치판단의 대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

지지만, '사실의 극한 점에서 객관적 사실의 정체성이 흐려질 때'에는 거꾸로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사실의 세계'에 선이 그어질 수 있다.

만일 줄기세포 제조의 동기가 '재화의 획득'이라는 탐욕에 있다면, 인간 개념의 주변부에 위치하는 '체세포 복제배아'는 생명의 범위에 들어오며, 이를 해체하는 것 역시 살인행위가 된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난치병의 치료'라는 '선(善)한 가치'라면 '체세포 복제배아'는 생명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며 이를 해체하는 것은 살인행위가 아니다. '인간' 개념의 극한에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선(善)한 가치'가 '사실'의 세계에 그어질 '인간' 개념의 테두리를 이동시킨다. 신통력인 천안의 눈에 보여서 수행을 방해하던 미생물들을 육안으로 지워버리고 사리불이 수행에 매진할 수 있었듯이 '주관적 가치'의 선악에 따라 '객관적 사실'이 변화한다.

화엄사상에 의거하면 온 우주가 생명이고 모든 것이 생명이지만, 반야적 조망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생명



11) 대장장24, p.491c.

이랄 것도 없고 인간이랄 것도 없다. 이를 '진제(眞諦)'라고 부른다. '참된 진리'란 의미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이는 윤리적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초윤리적 조망이다. 윤리를 논할 수 있는 영역은 '생명'과 '생명 아닌 것' 사이에 선을 긋는 '분별의 영역', '속제(俗諦)의 영역'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혈액'이나 '골수세포', 또 '뇌사자'나 '시체'의 경우 '인간' 개념의 테두리 밖의 존재라고 간주하고서 그 활용을 용인하고 권장한다. 그러나 인간 배아의 경우, '인간' 개념의 테두리 안의 존재이기에 그것에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 개념 밖의 존재이기에 연구와 치료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배아가 인간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그 연구자는 물론이고 그 시술을 받는 자, 그를 용인하는 우리 사회 모두 살인의 죄악을 범한 꼴이 될 것이다.

율장의 가르침에 비추어 추측할 때 배아의 생명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배아라는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루는 연구자의 마음가짐에 있다. 연구자가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이 연구를 한다'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서 연구에 임한다면 체세포 복제배아는 생명체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연구에 임한다면 이는 생명체다. 인식의 극한에서는 '주관적 가치'로 인해서 '객관적 사실'이 변화한다. 윤리와 관계된 개념의 경우, 그 의미가 모호해지는 '개념의 주변부'에서는 '가치'가 '존재'를 변화시킨다. '생명공학 연구자의 마음가짐과 연구목적'이라는 주관적 가치에 따라 그 연구행위와 시술행위가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악행'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 6. 배아연구와 그 활용기술의 바람직한 방향

불교의 업(業)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살생 행위가 전적으로 악행과 관계된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생선횟집을 운영할 경우, 매일매일 수많은 활어를 살

해하는 측면은 악행이지만 이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허기를 채워주는 측면은 선행이다. 개인적 욕망에 근거한 배아연구라고 하더라도 배아를 해체하는 것은 악행이지만,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해준다면 이는 선행이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른 차가 끼어들게 양보할 경우 끼어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뒤따라오던 차의 운전자에게는 불편함을 주듯이 우리의 많은 행위는 이렇게 선과 악의 양면을 갖는다. 불교의 인과응보설에 의하면 이런 선업과 악업은 각각 별도의 종자로 우리의 '마음 밭'에 저장되었다가, 무르익어서〔異熟〕 미래나 내생에 내가 체험할 고락(苦樂)의 파노라마로 전개된다.

그러나 개인적 탐욕에서 벗어나, 난치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배아를 연구하고 치료기술을 개발한다면, 악의 측면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배아연구에 윤리의 눈을 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철저한 공적관리에 있다. '고통 받는 환자를 살리는 자비의 기술이어야 하는 생명공학기술'이 '탐욕의 생체실험기술'로 엇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公的)인 시스템 내에서만 모든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체세포 복제연구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복제태아'의 수태를 위해 체세포 복제기술이 악용되는 것이다. '복제태아'가 만들어질 경우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장기(藏器)'의 공급원으로 태아가 악용될 수가 있다.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경우'라는 특수한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임신 후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sup>12)</sup> 그런 단서조항과 무관한 낙태기술이 만연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복제태아의 악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체세포 복제기술의 개발과 시술이 일반 사기업에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의 목적은 도덕이 아니라 이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아연구를 통해 개발된 의료기술은 '재산'이나 '권력'의 우열이 아니라 '필요'와 '시급성'의 순서에 따라서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sup>13)</sup>

12) 모자보건법 제14조.

# 운득 길을 나서다

혜가 / 대교과



늦은 오후 햇살 아래  
소리없이 여울에 가는 가을길

가만히 바람을 안다.

내마을 가는 끝은  
사랑 레몬 이끼  
스스로에게 가는 길은 뿐입니다.

## 우리 도감 노스님

- 석남사 원광 노스님을 뵙고 -

우연 / 사교과

운문사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석남사라던데…

산을 돌아 말로만 들던 석남사로 향하던 날, 세상을 깨끗이 씻어 내려고 작정한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석남사는 다소 비 피해는 있었지만, 도착한 시간이 입선시간이라 고요함으로 가득한 도량은 스님들의 수행 열기와 청정함이 배어 있었다.

어느 모퉁이에서 자그마한 체구에, 고의를 둉둥 견으시고 맨발에 고무신을 신고 벗속을 걸어오시는 노스님.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 저 분이구나'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런 노스님의 소탈한 모습에 우리는 편안한 친근감을 느꼈다.



올해 연세가 85세이신 원광 노스님은, 석남사의 실림살이를 두루 살피는 도감 소임을 맡고 계셨다.

노스님의 소임은 여느 용상방의 소임처럼 매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평생 소임이다. 수행의 실천이며 그냥 당신의 삶이셨다. 노스님은 우리를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나는 아직 공부를 마치지도 않았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냥 뒷방 늙은이일 뿐이야.” 그리고 나서는 도량을 살피러 나가시는 것이었다. 그런 노스님 뒤를 우리는 그저 조용히 따랐다.

“우리 도감 노스님은 남들이 잘 들보지 않는 신발 광 정리, 창고 정리, 정통 뒤 풀 뽑기, 마당 고르기에서부터 메주 율력, 간장 만들기, 김장, 강정 율력 등 젊은 우리가 하기도 힘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충지휘하세요. 얼마나 꼼꼼하고 깔끔하신지 몰라요” 하며 스님 한분이 노스님의 일상을 말씀해 주신다.

석남사가 이렇게 정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궂은 날씨엔 당신 몸도 궂으실 텐데 도량 이곳저곳을 물이 새거나 넘치는 곳 없는지 몸소 살피시는 그 모습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

노스님을 좋아하는 한 학인스님은 유품 후 직접 타주시는 노스님의 커피 맛이 일품이라고 자랑을 한다. 왜냐하면 그 커피와 함께 옛날 스님들의 이야기가 곁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노스님은 우리에게 맛있는 커피를 타 주셨다.

“예전에 우린 불사할 때 스님들이 직접 기와를 지붕 위로 올려 이고, 개울가에서 돌을 골라와 담장을 쌓았지. 특히 우리 (인홍)노스님은 누구든지 지대방에 누워 있는 걸 보았다하면 불벼락을 내리셨어.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시켰는지 몰라.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스님들은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야. 요즘 스님들은 한 시간 일하고 두 시간 쉬지? 근기가 약해. 일을 공부 삼으면 안 힘들어. 신심이 있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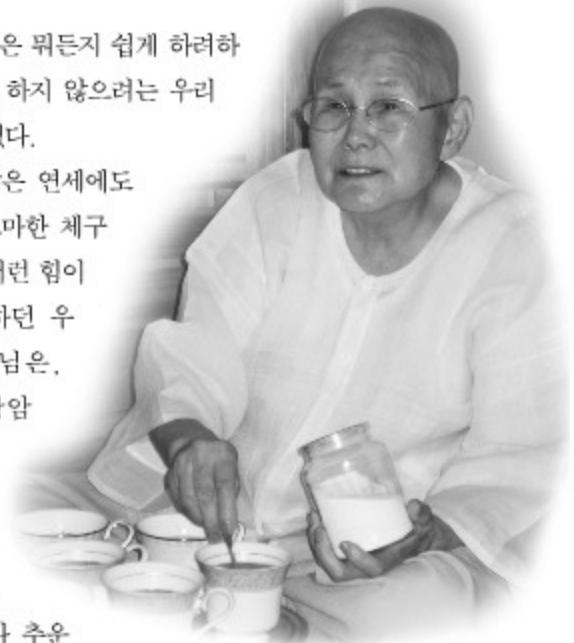
스님의 말씀은 뭐든지 쉽게 하려하고,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는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

더군다나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궁금하던 우리에게 노스님은, “오대산 지장암에서 3천배 백일기도를 했지. 내나 이 50이 넘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다기물이 팽팽 열어 먹을 것도 없고, 참 어려웠어. 그래도 신심이 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3천배 중간에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요즘은 물 먹고, 화장실 가고 다하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커피와 함께 하는 노스님의 말씀은 유품에 친학인들에게 재충전의 에너지가 되어주신다 한다. 그래서인지 잠시 노스님 곁을 떠나 있는 스님들에게 노스님의 커피는 ‘그리움의 커피’인 것이다.

또 우리에게 인상 깊었던 한가지는, 방과 달라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것을 싫어하셔서인지 소박하기 그지없는 노스님의 방이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인적인 일로 대중을 놔롭게 하지 않겠다” 하시며 아직도 시자가 없으신 노스님. 소박한 모습과 도량을 외호하는 것을 수행삼아 평생을 사신 노스님의 모습은 마치 새벽 별 같았다. 그런 노스님의 환한 미소는, 석남사를 내려오는 우리의 마음을 비가 되어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



## 또 가을이 오고

조 은 / 시인



지난밤 꿈에 작년 가을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았다. 꿈에 본 모습은 편안해 보였지만 살아계실 때 나의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고생이 많았다.

어머니가 늘 아팠기 때문에 나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별의 순간에 늘 대비하고 있었다고 믿었는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에야 전혀 이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삶만큼이나 죽음과 그 후 세계를 의식하고 살았던 어머니는 십 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말은 할 수 없어도 의식이 또렷했고, 곧 닥칠 이별을 슬퍼하는 우리들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 십 일 동안 나는, 어머니가 늘 힘들어하던 육신을 훌훌 털고 떠나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들에게 차분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모성인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면회시간에 어머니를 보기 위해 중환자실로 들어갔던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로 눈앞에서 일대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눈에도 어머니 옆 병상의 할머니를 빙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히 보니 말기 암환자인 여든의 할머니는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끊어지자마자 소생술을 받고 있었다. 전기 충격으로 인해 몇 차례 몸이 펄쩍펄쩍 솟구쳐 오르던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그대로 임종하자 유족들은 더 소란스러워졌다. 그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폭 빠져들거나 서로 얼싸안으며 슬픔을 달래주지 않고 아직은 영혼이 그곳에 머물고 있을 고인을 앞에 두고 불만에 차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 또한 어머니와의 이별을 앞둔 내 눈엔 더없이 충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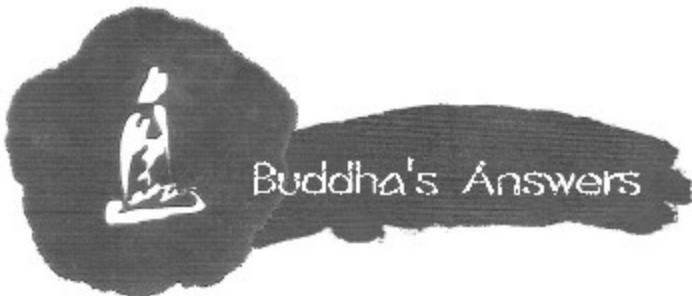
그 순간 독서를 통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종교를 초월할 수많은 기도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내 어머니가 눈앞에 와 있는 죽음 앞에서 혼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문을 기억나는 대로 되뇌었다. 그리곤 누구나 한 번은 그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주지시키며 어머니를 내려다봤다. 미간이 조금 접혀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다지 동요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죽음이라는 '삶의 마지막 과정'의 구부 능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를 향해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떤 죽음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힘에 겨울 수도 있는 법이고, 내겐 바로 어머니의 죽음이 그러했다.

몇 가지 안 되는 단출한 어머니의 유품 중에는 불교 서적도 있어서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 책을 자주 읽어보곤 한다. 그 중 몇 번을 읽어도 와닿는 부처님의 말씀 중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길벗이 되지 마라"는 구절이다. 가끔 잘못된 인간관계로 인해 탈진하곤 했던 내 모습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새삼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불교를 잘 모르던 나는 부처님은 으레 자비를 설파하며 세상 모든 어리석은 대상까지도 껴안아야 한다고 가르친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처님은 엄격했고, 그것이야말로 한 차원 높은 자비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도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마뜩잖게 여겨 나무란 적이 있는데, 어리석은 나는 늘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들었다.

다시 가을이 오니 계으르게 살아온 자의 미래가 더욱 암담하게 느껴진다. 다행히 어머니가 남긴 책에는 회한과 번뇌와 외로움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

약력 | 시집으로 〈사랑의 위력으로〉〈무덤을 맨도는 이유〉〈따뜻한 훠〉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벼랑에서 살다〉〈조용한 열정〉〈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등이 있다.



## The Human Route(인생 길)

**生也一片浮雲起**

*Life is like a floating cloud that appears.*

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死也一片浮雲滅**

*Death is like a floating cloud that disappears.*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스러지는 것과 같네.

**浮雲自體本無實**

*The floating cloud itself originally does not exist.*

구름 자체는 본시 실체가 없듯.

**生死去來亦如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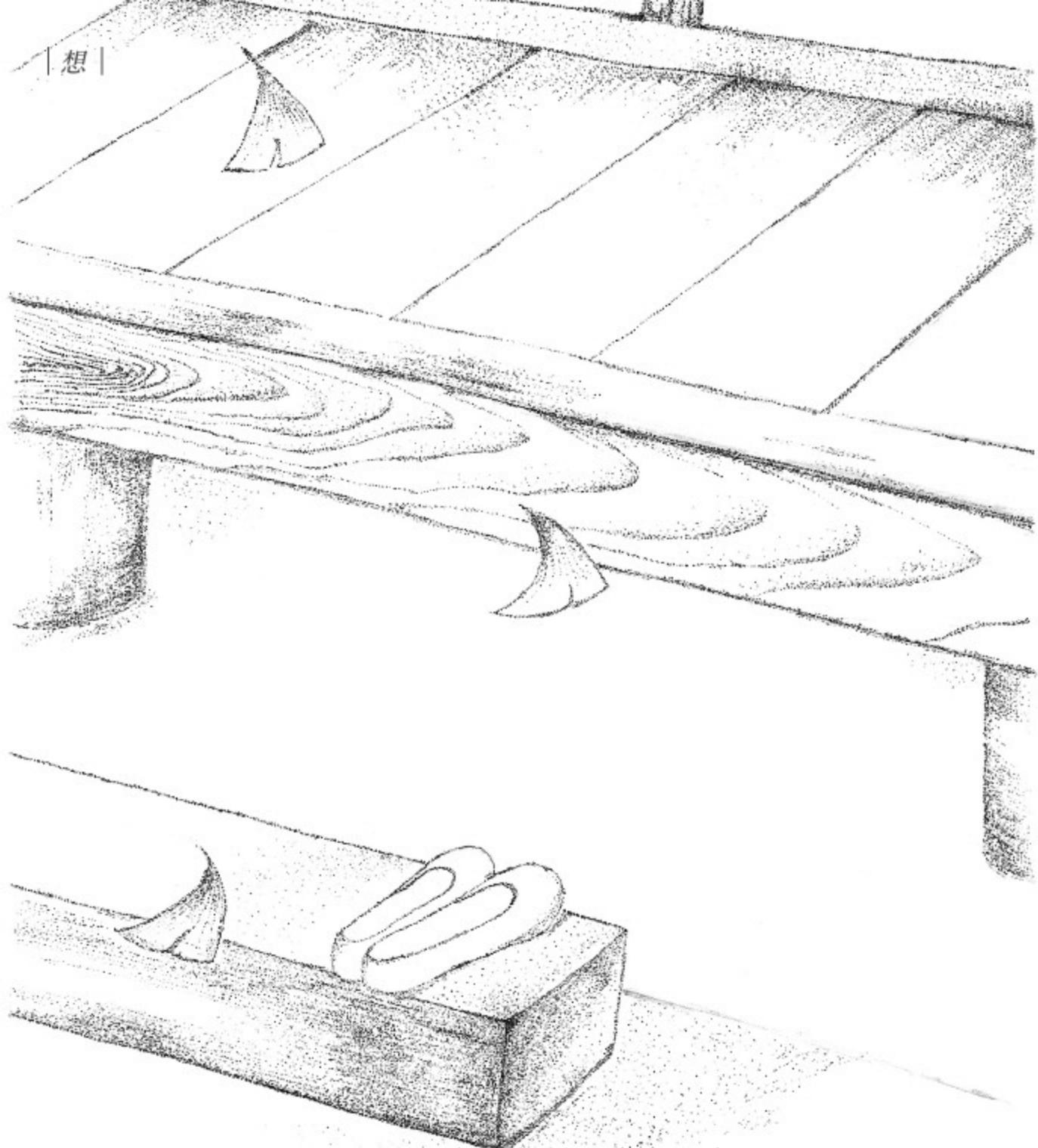
*Life and death, coming and going, are also like that.*

삶과 죽음, 오고 감,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The Compass of Zen』

(『선의 나침반』)

| 想 |



바람이  
要学会

海 鹵 / 사집과

## 내 말 훔쳐가지 말그래이!

- 성수 쿤스님을 뵙고 -

지 환 / 대교파



여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現在 七佛로 모아진 우리를  
성수 쿤스님은 천천히 나눴다. 천수를 치운 치고 나서 차를 떼는  
임종 훔쳤다는 듯한 듯한 손길에 양손에 치운 이불을 허락해  
더울 할 것 같아 악한 냄새를 일으킬 우려가 되어 치고 나서야  
흐뭇한 웃음을 짓고 차를 흐르는 비를 보며  
‘우리는 무명을 구하고자 이렇게 떠나고 있던가, 둘 속으로 차운하다.

큰스님께서는 작년 여름에 운문사에 잠깐 들러 종무소 앞에서 짧은 법문을 하신 적이 있다.

“사자새끼가 되그라. 사자새끼는 지어미를 물어 죽이는 기상이 있는기라. 태양을 집어삼칠 만큼의 용맹심을 내서 공부를 한바탕 지어볼지니라.”

짧지만 여운이 커던 그 법문이 인연이 되어 사자새끼를 찾으러 떠나고 있는 것이다.

황석산 자락을 흐르는 개울을 따라 한참 들어가니 황대선원이 보인다. 비 내리는 황대선원은 산색과 더불어 고요하면서도 아득한 느낌을 주었다. 주지스님의 반가운 인사와 법당 참배 후 바로 큰스님께 안내되었다. 큰스님은 우리의 인사를 받으시자마자 밥부터 먹으라며 힘빠 웃으신다. 허리를 곧추세우시고 좌상에 단아하게 앉아계신 모습에 약간 긴장이 되었지만 큰스님의 웃음에 우리도 힘빠 웃는다.

공양간의 나무 선반위에는 보살님들 법명이 적힌 발우가 가지런히 얹어져 있었다. 바쁘게 평생을 뛰신 노보살님들은 이곳에서 발우를 끼며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저 세상의 번화한 사람들이야 어찌 이 세상 밖의 한가한 삶을 알 리 있으랴!’ 그렇게 웃는 노보살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묵은 땅을 피해 햇 땅을 일구어 내시는 큰스님의 그늘이 큼을 느낀다.

“여기는 내가 머무르고 있는 조그마한 토굴이다. 그래, 운문사에서 나를 뭐 하려 찾아왔노? 내 말 흔쳐가지 마라. 화엄경 빙이라고? 화엄경의 제목은 물어왔니? 아이고 가스나들.”

큰스님 주위에 빙 둘러 앉아있는 우리에게 처음 건넨 말씀이시다. 큰스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여전히 웃을 뿐이다. 많은 것을 물으려 이 자리에 앉아있건만 정작 우리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제목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다. 내가 해인사에 살 때 누가 해인사에 와서 ‘해인’의 의미를 물으니 500명 대중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 그렇게 확실히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확실히 깨닫는다. 부처님은 확실히 물었기 때문에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양전하게 절을 위해서 중노릇 하지 말고 말

괄랑이, 개망난이가 되어서 머리도 길러 보고 머스마도 아니고 가스나도 아닌 채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큰스님들을 찾아 딱 물어봐라. ‘부처가 무엇을 가르쳐 줬나?’라고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른들과 부딪쳐야 크는 법이다. 큰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역설을 물잡고 젖통을 드러내 놓고 대답을 못 하거던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라고 말 할 수 있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허허허, 가스나들 그럴 기상이 있나? 그렇게 장벽에 부딪혀 봐야 비로소 공부가 시작된다. 일어날 수도 엎어질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가져 봐야 대신심, 분심, 의심이 난단 말이다. 묵은 곳에서는 절대 공부가 되기 힘들다. 편한 곳에서 배부르게 먹으면 공부하기 힘들단 말이다. 선방 생기고 불교 다 망했다. 나옹스님도 담 밑에 가서 읊을 도를 깨달으셨지. 해주는 밥 먹고 등 따뜻한 곳에 서는 발심하기 어렵다. 남의 신세지는 것은 독한 피를 뺏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들이 남의 돈으로 기름 한 빙을 나지 않는 곳에서 외국 자가용 쓸고 다녀서는 안 되지. 시주물을 아껴야 한다. 소화제 먹어 가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생각이 나 해왔단 말이다.”

우리들 얼굴을 번갈아 보시며 이것저것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보다. 예전 같지 않은 지금 승가의 모습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심이 역력하다. 큰스님의 눈빛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인다.

큰스님께서 또 먼저 입을 여신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不殺生의 뜻을 아니? 不殺生은 파리나 모기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죽지 말아라’의 뜻이다.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죽지 말라’라고 간곡히 설한 뜻이란 말이다. 이 ‘不殺生’ 석자가 바로 禪法이야. 이 선법만 확실히 서면 生, 老, 病, 死의 노예가 안되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는 禪이요, 바로 설법하는 禪이다. 圓覺이 普照하니 寂滅이 들이 아니더라. 寂과 滅이 들이 아닌 걸 알고 보니 산은 산, 물은 물이더라’라는 그 원리를 알아야 한단 말이다.”

또 淨口業眞言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 말 뜻도 모르고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한 마디라도 꼭꼭 씹어야 제 맛이 나는 것인데 입으로는 무슨 유행가 부르는 것처럼 흥얼거리면서 行은 따로 노니 어느 세월에 부처님의 뜻을 알아먹겠느냐? 선재동지가 53선지식을 만나고 다녀도 아무도 자기에게 원하는 말을 안 해주더라는 거야. 그러다 개울을 건너는데 개구리가 '개굴 개굴' 하는 소리를 들고 한수간에 깨달아버렸지. 깨닫고 나니 그 동안 53선지식이 자기에게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알아먹고 있었던 거였지.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經도 마찬 가지다. 한번은 꼬마 녀석들이 '야, 중이다'라고 놀리는 소리에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 삼년을 산에서 풀만 뜯어먹고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때 철이 좀 났지. 그리고 나서 법문하는 곳을 뚫아다니니 모두가 완전히 나를 위한 법문이요, 經을 봐도 모두 금쪽같이 귀한 말들이 그대로 살아있더란 말이다.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는 그 말이 그 말이다 라고 생각했거든… 너희들도 經을 보면서 그런 거 느껴봤나? 그것을 느껴봐야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큰스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둘러보신다.

"그래 내 이야기만 흡쳐가지 말고 너희들 이야기를 내놔봐라. 가스나들 같은 티만 내지 말고 천하 장부가 되어서 내 역할을 잡을 사자새끼가 여기 있느냐?"

비는 여전히 더 세게 그리고 약하게를 반복하면서 내리고 있다. 우리의 침묵을 대신해서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큰스님께서 가장 용맹스럽게 정진하실 때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내민 우리의 질문이다.

"19살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인생 무상을 느껴 출가를 결심했어. 1944년에 내원사에서 성암스님을 은사로 졸가했다. 해인사에 공부하러 갔다가 공양주 소임을 시키길래 '나는 공부하러 왔다'고 버텼지. 구산, 청담, 인곡스님까지 세 분이 차례로 달래도 안

되니 나중에는 조실인 효봉스님한테까지 이야기가 들어갔지. 효봉스님이 직접 오셨기지고 이렇게 말하더라.

'네 이놈, 上心하지 말고 下心해라.'

'스님은 위에 있으니 下心하라 하지만 나는 위에 있어 본적이 없어서 上心도 모르면서 下心을 알겠습니까?'라고 오히려 맞받아쳤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나는 출가 전부터 큰 절을 찾아 다니면서 스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큰 중나와라. 이 중놈들아, 시주밥이나 츄내지 말고 나와서 죽지 않고 사는 밥을 말해봐라'라고 온 절을 쑤시고 다녔었지. 그때 내원사에서 은사스님을 만났는데 그것을 알려면 일단 공부부터 해야 한다고 나를 타이르시며 45일만에 초발심자경문을 십만독 하라고 하셨지. 처음에는 소리내어 시끄럽게 흥얼흥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끄럽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읽어 내려가서 30일만에 십만독을 마쳤다.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그리고 나니 다시 천수경을 십만독 하라고 해서 또 했지. 그건 그렇게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한 적 있나? 암튼 효봉스님과의 언쟁끝에 7일 이내에 도를 깨치겠다는 약조를 하고 태극당에 들어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그리곤 6일째 되는 날 '天下萬物은 無非禪이요 無非道다'라는 계송을 지었지.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이렇게 끈질긴 인내와 기개가 있어야 한다. 옛 어른들은 공부를 놓고는 나이를 따지지 않았지."

큰스님의 짧은 시절과 지금 이 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그런 기상이 없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다. 다만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를 닦겠다고 머리를 깎긴 깎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자 때 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의욕이 상실되고 타성에 젖어서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간절해질까요?"

얼마간의 침묵 끝에 우리가 내민 또 하나의 질문이다. 스님은 다시 웃으시면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지. 하루

에 세 번씩 정말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내가 절에 뛰하러 들어왔나? 절을 위해서 들어왔나, 나를 위해서 들어왔나?'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다. 밀심이 불명해 야 돼. 화두를 일러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망귀만 뛰어도 道맛이 나는 사람, 그것이 화두다. 목적,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안되는 것이여. 불공기도 해서 소원 빌어주는 것이 불교가 아니라,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죽는 것 배우는 것이 불교다. 알고 싶은 마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당장 목을 자른다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간절하게 물어야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천만번 물어봤자 소리가 귀에 안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실히 검토한 후에야 앉아있는 부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바보스럽다. 어쩌면 큰스님께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은 마음일까! 스스로에게 끝도 없이 질문을 한다.

'무엇을 구하고 싶은지 정말로 모르고 있는가?

道를 구할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 두 시간이 넘게 허리를 꽂꽂하게 세우시고 여여하게 말씀하신다. 옆에 계신 처사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라고 옆에서 눈치를 주신다. 큰스님은 팔십의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회든 마다하지 않고, 또 친견을 요청하는 곳은 다 응해주시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한다. 큰스님은 당신이 지으신 책이라고 우리에게 『禪行門』과 『佛門寶鑑』을 나누어 주시며 꼭 열심히 공부해서 사자 새끼가 되어 다시 찾아오라고, 그때는 칼을 들고 목을 베려 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신다. 큰



스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기가 부끄러웠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큰스님은 끝까지 웃음을 잊지 않으신다. 아마 그것이 희초리보다 더 큰 채찍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얼마나 우리가 강하고도 안타까우실까!

큰스님께 절을 올리고 산청에 있는 해동선원으로 향했다. 해동선원은 큰스님께서 폐교

를 인수해 시민 선원으로 가꾼 곳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의 그릇에 맞춰 부처님 법을 배우는 도량이다. 폐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운동장에는 노천 법당이 너무나 잘 어울리게 들어서 있었다.

"공부하다 몸이 좀 아파서 망상 좀 피웠습니다." 해동선원 주지스님의 겸손하신 대답이었다. 보살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계셨고 총무스님은 봉고를 쟁쟁거리며 그 뒷일들을 봐주시느라 바빠 보였다. 큰스님의 뜻을 그렇게 묵묵히 지켜 주시는 주지스님과 총무스님의 모습에서 또 다른 큰스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돌아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든든했다.

'앞서가는 이여,  
갈팡질팡 걷지 말라.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큰스님께서 자신 있게 꾹꾹 눌러놓은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도 한 발자국씩 꾹꾹 누르며 밟아 나아갈 것이다.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하여 … ☺

## 가을 연꽃처럼 자기를 접을 때

이미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참 미인이십니다.”  
“신수가 훤히 보이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인사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동안이  
십니다” 하는 인사가 가장 듣기 좋다고 합니다. 그것  
도 제 나이보다 한두 살 어려보이는 것은 성에 차지  
도 않습니다. 최소한 다섯 살 아래로 보여야 남들 앞  
에 서는 게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나  
이 들어 보이면, 아니 제 나이로 보여도 마치 인생을  
헛살아온 느낌이 들어 사람들은 걸모습을 꾸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종일 강의를 하고 나서 버스를 탔을 때의  
일입니다. 원고도 써야 했고 강의 준비도 하느라 전  
날 잠을 좀 설쳤습니다. 버스좌석에 앉자 맥이 풀렸  
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툭 건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창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를 건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중학교 남학생. 어리  
둥절해 있는 나에게 그 학생이 말하였습니다.

“아줌마, 내릴 곳 지나치지 마시라구요.”  
요즘 보기 드물게 친절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학생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기 전에 내게는  
서운함이 먼저 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려  
고 단정하게 차려 입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  
고 “아줌마!”라고 딱 불러준 그 학생이 못내 섬찟했  
던 것입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 찬바람을 쐬자  
조금 전에 일었던 감정들이 우스워지기 시작하였습  
니다.

‘지금의 내 나이를 감안하자면 그 학생은 가장 정  
확하게 나를 본 것인데 왜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일까? 세상 그 무엇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세월은  
속일 수 없다는데 왜 나는 내 나이보다 어려보이고  
싶은 것일까? 나는 내 나이가 부끄러운 것일까?’

대체 나는 제 나이보다 어리게 보여 무슨 이익을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  
자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흰 머리카락이  
한 올 난 것만 보고도 세상의 잡다한 일을 정리한 왕  
도 있었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너무 철이 없는 사람  
임에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질고 총명하여 백성들을 덕과 사랑으  
로 다스렸고 나라는 매우 안정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발사에게 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께서 흰 머리카락이 보이거든 지체 말고  
알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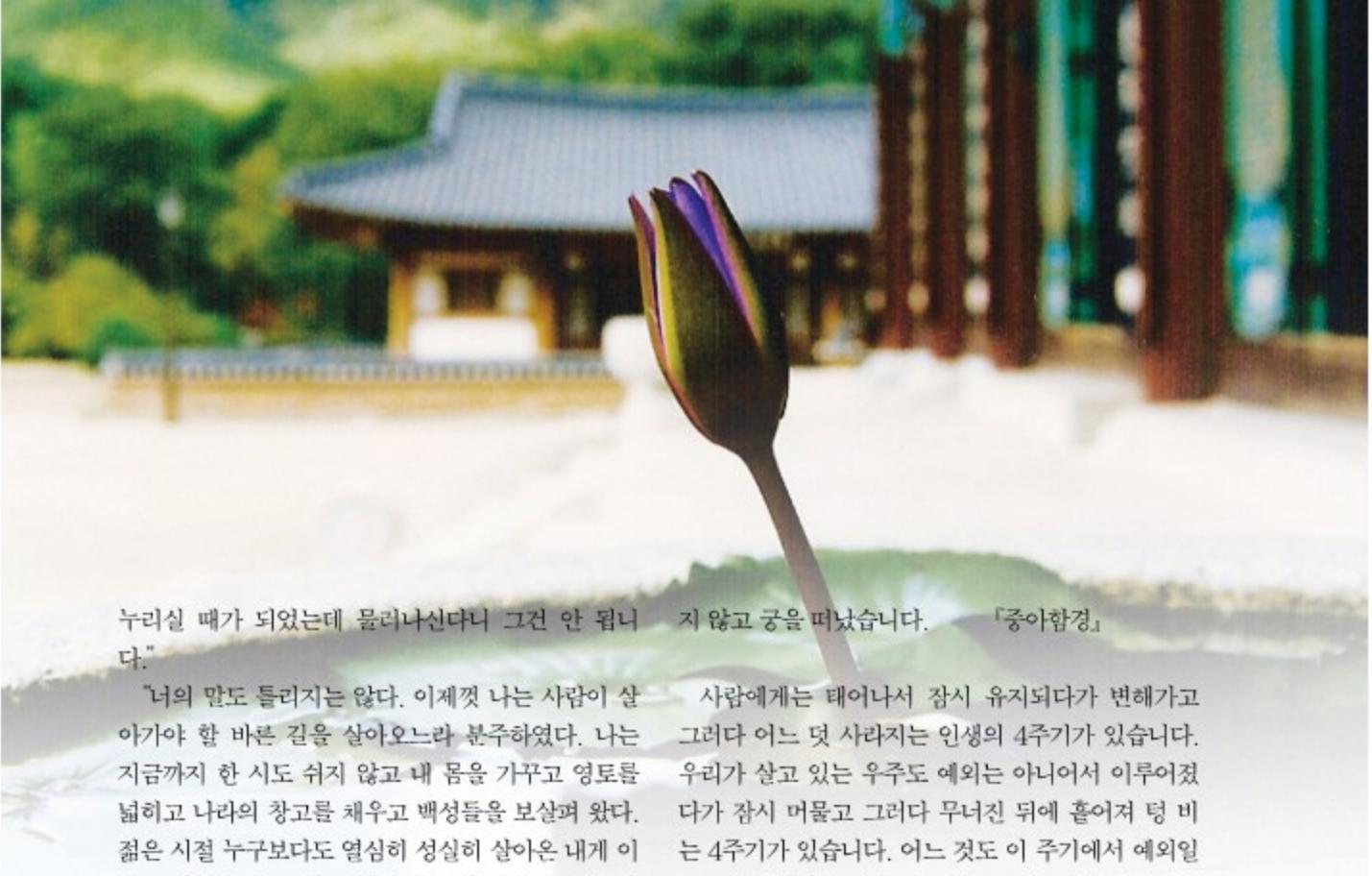
하루라도 그 명을 잊지 않고 있던 이발사는 어느  
날 왕의 머리를 매만지다 흰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  
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서둘러 태자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내게 흰 머리카락이 생겨났다. 이제 왕위를 네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

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하, 누구에게나 흰 머리카락은 생기지 않습  
니까? 젊은 시절 힘들게 이루었던 그 영광을 이제는 맘  
껏 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부귀영화를



누리실 때가 되었는데 물려나신다니 그건 안 됩니다.”

“너의 말도 틀리지는 않다. 이제껏 나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살아오느라 분주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한 시도 쉬지 않고 내 몸을 가꾸고 영토를 넓히고 나라의 창고를 채우고 백성들을 보살펴 왔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내게 이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찾아왔다. 고맙게도 내 흰 머리카락이 그 때를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즐기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저 부귀영화와 권세를 다 접어두고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제 그런 내 관심과 정열을 안으로 돌리려고 한다.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 정신과 마음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나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려 한다. 성자의 가르침을 따라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네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태자는 그래도 부왕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왕을 설득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태자에게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태자여! 나는 나이가 들었다. 더 지체할 수 없다. 다만 네게 진심으로 부탁하니 세상을 범답게 다스리고, 나라 안의 모든 악한 일을 없애며, 선행을 장려하여라. 그리고 너 역시도 훗날 나이가 들어 흰 머리카락이 생기거든 정사를 물려주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나서 왕은 즉시 권좌에서 물려나 미련을 두

지 않고 궁을 떠났습니다. 『중아합경』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잠시 유지되다가 변해가고 그러다 어느덧 사라지는 인생의 4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루어졌다가 잠시 머물고 그러다 무너진 뒤에 흩어져 텅 비는 4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것도 이 주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생의 주기를 거스르고 싶어 합니다. 몸이 변해가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수화풍의 4대로 이루어진 육신이야 자연의 법칙을 따를 뿐인데 사람들은 어째서 그 변화를 부끄러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달라지고 싶지 않아도 세월이 나를 변화시키고 늙힙니다. 이미 더 이상 젊은 시절의 몸이 아니게 된 몸뚱이를 지켜보면서도 “말도 안 돼. 나는 이렇게 늙을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연꽃의 빛이 선명하고 좋을 때에는 누구나 보고 사랑하지만 가을이 되어 그 꽃이 시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만다. 고개가 꺾인 가을 연못의 연꽃처럼 스스로 마음 속 애욕을 점이라. 성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릇된 습관을 이제는 버려라.”

『줄요경』

변하고 달라지기 마련인 걸모습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기억 속의 그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데에 삶의 남은 시간을 쏟아버리는 현대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

## 가을 햇볕

안도현

가을 햇볕 한마당  
고추 말리는 마을 지나가면  
가슴이 뛴다

아가야  
저렇듯 맵게 살아야 한다  
호호 눈물 빠지며 밥 비벼 먹는  
고추장도 되고

그럴 때 속을 풀리는 찬물의 빛나는  
사랑도 되고



서산대사의 광무점검법

편집부



禪家龜鑑

##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설민 / 사교과



사교 올라와 처음 접하게 된 능엄경.

'차돌능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래서 '능엄경 볼 때는 장애가 많으니 마음 씽씽이를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들었다.

그래서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능엄경을 보는 도중에 나에게도 장애 아닌 장애가 와 버렸다.

부처님은 아난이 마등가녀의 음술에 빠지는 것을 보고 神呪를 宣說하시고 문수보살로 하여금 주문을 가져가서 아난을 보호케 하신다. 그때 울고 있는 아난에게 부처님은 “네가 출가할 때 무엇을 보고 출가했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제가 부처님의 몸이 거룩하시고 광명이 눈부시며 여러 가지 찬란한 것을 보고 우러러 간절히 사모하여 출가를 했습니다”라고 하니, “그리면 너의 눈은 너의 몸에 있지만, 어느 것을 너의 마음이라고 해서 눈과 같이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신다. 그때 아난이 7가지로 마음이 있는 곳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모두 파한다. “참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밖에도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하는 자체도 아니며, 중간에도 있지 아니해서 일체 있는 바가 없다.”

난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치 아난처럼 ‘그럼 도대체 일곱 곳 모두에 없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마치 체한 사람처럼 가슴이 꽉 막혀 답답해져 갔다. 심지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아! 이 공부는 머리로 배우기 보다 수행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 이란 생각이 들어 어느 날 어른 스님을 찾아뵙고 나의 답답한 심정과 화두를 들어야 하는지 어떤지 여쭈어 보았다. 어른 스님은 빙

그레 웃으시며 “물론 어렵지. 당연한 거야. 수행이다. 화두다라는 생각보다 현재는 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도 나의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은 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반스님이 “스님, 여름방학에 ‘동사섭’에 한번 가 봐요. 스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사스님께 어렵게 허락을 맡고 용기를 내어 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늘 스님들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과 접해야 한다는 것과 내가 스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동적인 프로그램을 따라할 때는 참으로 난감했다.

이틀은 적응을 못하고 쭈뼛쭈뼛하니 같이 공부하려 온 스님 한 분이 “스님, 相이 있으면 화두공부도 못해요. 내가 없는데 무얼 그리 붙잡고 있어요?”

‘그래, 相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5박 6일을 그냥 허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고자 노력했다.

3일째 오후, 행동 명상 프로그램은 나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처음은 그냥 웃는다.(억지웃음도 15초 지나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한다. 하루 3분 백일동안 웃으면 암 치료도 가능하다고 한다.) 두 번째는 시장의 장사꾼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 높여 무엇이든 판다. 난 “양말사려, 양말사세요!!”라고 힘차게 소리 질렀다. 세 번째, 노래가 나오면 음악의 흐름에 따라 마음껏 몸을 움직인다. 네 번째, 너무도 우습지만 무료를 끓고 두 손도 바닥에 놓고 개가 되어 상대와 개처럼 짖으며 싸우라는 것이다.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부딪혀 보기로 했다. 나는 완전히 개가 되어 열심히 상대와 싸웠다. 끝난 후 같이 싸운 스님이 “스님, 놀랐어요.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어요”라고 말한다. 다섯 번째, 분노와 슬픔이 일어나면 한없이 울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울음에 몰입하니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소리도 지르고 울고 또 우는 내 자신이 놀랍기까지 했다. 나는 나를 과감히 던져 버리고 행동명상에 몰입할 수 있었다. 후련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등 뜬구름 같이 일어나는 한 생각에 집착하는 나 자신이 바로 큰 장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자신이 만들고, 또 자신밖에 풀어갈 수 없음을 이젠 안다. 프로그램 내내 나를 버리기 힘들었던 것도, 체한 것처럼 답답했던 것도 한마음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어른스님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경 보고, 수행하다 보면 어떤 장애가 와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믿는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음을 새삼 느끼며 힘찬 발걸음으로, 나는 운문사로 향한다. ☺

---

\* 동사섭이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중생과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는 불교적 가르침과 심리학 이론을 겸한 명상 프로그램.

## 산

동조 / 사집과

“그곳에 산이 있어 나는 그곳으로 간다”고 어느 산악인은 말했던가.

나도 산을 오른다. 혼자서 …

도반 스님들과 함께 가는 것도 좋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

산을 오를 땐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땀으로 온몸이 다 젖지만, 그래도 산이 좋아 나는 또 오른다.

나에게 있어 산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돌아보게 하는 안식처이자 스승이다.

산을 오를 때면 나는 생각한다. 산을 닮은 수행자이고 싶다고.

산을 오르는 중간중간 나무들과 건너편의 산을 보며 힘들면 쉬기도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산 능선을 탈 땐 여유가 많다. 사방이 잘 보이는 곳에 걸터앉아 “야 ~!”하고 소리치며 메아리를 듣기도 하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기도 한다. 또 그동안 나에게 문제가 되던 일들이나 화가 나고 답답한 일들이 있으면 따지듯 산에게 말해 보기도 한다. 여전히 산은 아무 말이 없지만 할 말을 다한 나는 산을 내려올 때쯤이면 발걸음도, 마음도 한결 가볍다.

산을 오를 때 커다란 새가 나를 쳐다보더니, 따라 오면서 뽑내듯 저쪽 산 봉우리로 거침없이 날아간다. 나는 한참을 부러운 눈으로 그 새를 쳐다본다.

‘나에게도 날개가 있었으면…’

하늘로 날아 가버린 새처럼 나도 결림 없는 자유인이고 싶었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사람이고 싶어 출가를 했다. 그러나 출가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남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것 같은데도 눈에 띄게 되고 내 심정을 말하려 하면 변명밖에 되지 않았다.

처음에 스님들이 일 하는 걸 보고는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고 내 마음대로 헤비렸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행자님! 생각내지 말라고 했죠.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항상

물어봐야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괴로웠고, 불만은 쌓여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망상 또한 더해갔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출가했나? 바깥에서는 적어도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고 살았는데…’ 모든 일들이 나의 의지와는 반대로 되어 가는 것 같았고, 끝이 없는 길을 끌려 다니고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낯선 사람들, 낯선 공간, 낯선 일들에 나는 버거워했다. ‘집으로 가야 하나?’ 혼자서 또 우울해 하였다.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항상 걸들고 있는 나에게 별좌스님은 이렇게 말해 주었다.

“행자님! 출가를 했으면 나를 버려야 해요.”

“……”

“바깥에서 내가 뭘 했던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던지 간에 여기서 익혀야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 혼자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왜 출가를 했는지를 항상 기억해요. 부처님을 믿고,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 힘과 믿음은 그 누가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이런 일들과 주위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산을 봐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설이 내려도 아무런 불평 없이 저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로 나의 생각이나 욕심들이 나를 채우려 할 때면, 그때마다 나는 산에 오르는 버릇이 생겼다.

산은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숨김없이 보여주는 사계절의 이야기와 가쁜 숨을 쉬었다 가라는 배려와 어떤 허물도 차별 없이 감싸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들이 느껴진다. 상처를 받아도 원망 없이, 서두름 없이 서 있는 그 산을 보고 있노라면 나의 어지럽던 생각들은 어느 새 사라져 흔적조차 없다.

그래서 난 오늘도 산을 오른다. ☺

시내에 나아가며 빛을 썻고 산을 바라보며 내 눈을 닦아네.

부질없는 영광을 꿈꾸지 않기네 이 뒤에 다시 무엇을 구하든

- 진각혜심 -

## 삭발, 그 설레임으로

법수 / 사미니파

아직도 처음 삭발하던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방망이질 친다.

서울 중심가에 있는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불법을 만나게 되었다. 설날 어른들께 세배하는 것도 몹시 어색해하던 내가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스님을 만나면 합장하고, 먼저 절에 가고 싶어 하던 것을 기특해 하시던 나의 어머니! 그러나 막내딸의 갑작스런 출가 소식에 근 한 달간 식음을 전폐한 채 부처님을 원망하셨지만 결국엔 딸의 확고한 의지에 손을 드셨다.

스님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찾아온 초여름 운문사의 저녁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안했다. 그래서인지 밤새 이목소 물 흐르는 소리를 도반 삼아 지난날의 기억들을 되뇌이다 새벽이 되어서 잠이 들었다. 잠깐 졸았나 싶었는데 어느새 창호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더니 분주히 움직이는 많은 스님들, 나는 당황스러워 얼른 문을 닫았다.

그날 하루 종일 스님들을 지켜보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송사리 폐처럼 우루루 나타나고 또 어느새 땅에 스미는 빗물처럼 사라지는, 처음 보는 풍경이 마냥 재미있고 신기했다. 지객스님의 '밤새 잘 잤는지' 안부 차원의 한차례 방문만 받았을 뿐 어느 누구와도 마주 대하지 않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튿날부터 나는 운문사 행자로 방부를 들였다.

**댕기 행자님!**

허리까지 내려 오는 긴 머리를 땋고 있어서인지 후원 스님들은 나를 댕기 행자라 불렀다. 그리곤 혹시 청학동에서 왔는지 묻기도 했다.

새벽 3시, '포르륵 또르륵 …' 멀리서 들리는 도량석 목탁 소리에 잠을 깨 후 부랴부랴 작은 정통으로 달



려가 땅기 머리를 들이자면 늘 예불 시간에 쓱거 허둥대야만 했다. 또한 저녁 예불을 마치고 빨래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엉키고 설킨 실타래가 되어 수습하기 힘들어 대충 묶고 자면 새벽 예불 가기가 민망했다. 어찌됐건 절집에선 머리카락도 苦였다.

행자생활을 일주일 정도 보냈을까.

원주스님은 회색 행자복을 한 벌 내주셨다. 주신 옷이 한 벌 뿐이어서 옷을 뺄면 입고 온 속복을 입어야 했다. 그날도 정통에서 빨래를 한 후, 속복으로 갈아입고 긴 머리를 맹강 묶어 늘어트린 채 행자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봐요, 행자님?” 뒤돌아 보니 재무스님께서 놀란 표정을 짓고 계셨다. “이 밤에 어딜 가려고? 행자님 많이 힘들어? 힘들어도 참을 줄 알아야지” 하시며 꾸짖으신다. 난 속으로 ‘어떻게 온 운문사인데…’ 싶어 오히려 내가 더 놀라서 “아~예! 옷이 한 벌 밖에 없어서요….” 하자, “아~, 그럼 당장 옷 한 벌 쥐야겠구먼.” 그 후로 난 속복을 완전히 벗어 버렸다. 이렇게 난 점점 삭발할 날만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새벽 예불이나 저녁 예불에 법당에 가면 맨 뒤에 앉아서 250여명의 스님들을 뒤에서 바라보면 말끔하게 삭발한 모습이 어찌나 부럽던지… ‘나도 빨리 머리 깎고 저 자리에 서아지.’ 그러다 보니 늘 바쁘신 은사스님께 조금은 서운한 맘이 들기도 했다. 더군다나 스님의 모습도 아니요, 그렇다고 속인의 모습도 아닌데서 오는 소외감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은사스님께서 새벽 예불 후, 나를 부르셨다. “행자님, 오늘 삭발합시다.” 난 너무 기뻐서 “네!!” 라고 크게 대답했다. 그 떨림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은사스님께서 젖은 머리카락을 들어 가위로 자르다가 그만 겪지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 어찌나 죄스럽던지… 옆에 계시던 교무스님께서 이런 나의 마음을 아셨는지 “행자님, 중노릇 잘 해야겠어요.” 짧게 한마디 던져주시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다.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난 그 말에서 굳은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가끔은 잊고 산다. 삭발할 때의 그 설레임을…

하지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의미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 깨달음의 밑바탕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깊고 바를수록 참다운 도와 가까워지리라.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보며 닮아가는 소년처럼, 나 역시 은사스님의 여법한 행을 따르며 경전을 믿고 의지하여 정법의 길로 나아가리라 다짐해 본다. ☽

##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편집부

그대만의 강과 그대만의 대양을 텁텁한 적이 있는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곳,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만이 그 세계를 엿볼 수 있으니  
외면할수록 그대만의 강은 점점 마르고 대지는 황폐해질 것이다.

저 멀리 홀로 있는 별이 빛나듯  
홀로 있는 시간을 사랑할 때  
그대만의 강과 대양은 깊고 넉넉해지리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굳이 철학자나 사생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한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등의 질문을 할 것이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자신을 이해해 줄 그 누군가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고독이라는 감정은 더욱 짙어진다. 시 한구절로 마음을 달래볼 수도 있겠지만, 평생을 철저하게 '고독'과 마주 해야 하는 수행자이고 보니 어느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이름없이 살다가도 행복한 들꽃의 고독을 배우고 싶다.

삶이란 결국 혼자 걷는 길. 주변의 인연들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잠시 외로움을 덜어줄 뿐. 갈림길이 나타나면 또다시 우리는 길 위에 홀로 서야만 한다. 마치 아기가 어머니와 분리되어 세상에 나올때 느끼는 두려움처럼, 고독은 우리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이다. 인생의 반려자로 고독을 인정하고 받아들일때, 고독은 우리 스스로를 'Buddha'로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 한 예로 발명가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된 후 "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나왔을 때는

다소 외로웠으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색과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움아 커졌다"고 고백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독은 탐욕을 버린 자유의 상태이다. 맹목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겉치레와 흐름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인 결박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 났을 때 자유를 향한 고독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고독의 맛은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 크리슈나무르티에 의하면 '홀로'라는 날 말 자체는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고독을 체달한 자는 세상 속에서 누구와도 완벽한 협동을 이루며 어울릴 줄 안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은, 화합하지 못한채 인간 관계의 부적응으로 남겨지는 고립과는 구분된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은, 도를 이루는 데 전부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수행자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의지하며 수행할 것을 중시하셨지만, 때로는 숲에 들어가 철저히 홀로 있기를 권하셨다. 고독을 향유하되, 관계 속에서 고립되지 않는 전형을 보이신 것이리라.

이렇듯 자신만의 그 텅 빈 여운을 사랑하게 될때 감각적 즐거움에서 벗어난 자신과 만나게 되며, 깨어있고자 하는 자신의 지혜도 만날 수 있게 된다. '텅 빈 충만'은 시원한 가을 바람만큼이나 상쾌하다.

농부가 하루 종일 혼자 밭에서 씨앗을 뿌리거나 김을 맬 때, 수행자가 철저한 정진으로 삼매에 들었을 때, 그들이 혼자일지라도 그 모습은 결코 외롭지 않다.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을 때 그것은 고독마저도 삼켜버리는 것이다. 홀로 있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만이 Buddha를 이루리라. 굳은 의지로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하는 수행자에게 고독은 세상을 비추고 나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되어줄 것이다.

이름 없이 살다가도 행복한 들풀의 고독을 배우고 싶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



비로진 상평식



오백전 백일기도 인재



청건스님의 두강



안양교 고수님의 두강



제35차 동문총회

## 운·문·소·식

- 8월 30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일 비로전 상량식이 있었습니다.
- 9월 4일 제 171회 임시중앙 종회에 주지스님께서 종회의원으로 다녀오셨습니다.
- 9월 5일 ~ 11일 '사할린 피칭용 한인을 위한 위령제'에 학장스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 9월 7일 맹자, 영어, 일어, 요가, 시군자, 서예, 컴퓨터, 꽃꽂이, 염불, 퍼 아노 등 의견이 시작되었습니다.
- 9월 10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오백전 백일기도도 입재가 학감스님의 법문과 함께 오백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13일 고추파기 대중율력이 있었습니다.
- 9월 15일 가을철 첫 자자가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3일 청건스님의 <부처님 호흡법에 관한 참선 기초수련> 특강이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5일 태구 노스님 4재가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8일 학인스님들의 차례법문이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9일 ~ 10월 1일 동국대 안양교 교수님의 <아합경>을 중심으로 본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한 특강이 3일간 있었습니다.
- 9월 30일 동학사에서 있었던 전국강원 교직자회의에 주지스님과 어른스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 10월 2일 ~ 4일 화엄반 스님들의 종업여행을 위한 신종기도가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5일 추석맞이 송편빚기 대중율력이 청풍묘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6일 대중스님들의 산행이 있었습니다.
- 10월 11일 제 35차 동문화 정기총회가 삼장원에서 있었습니다.
- 10월 12일 ~ 25일 주지스님, 학감스님의 어른스님 2분과 대교과 스님 64명이 13박 14일간 인도로 출입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 10월 30일 九重日祭를 조영전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 12월 5일 가을철 종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 기후스님    | • 정해환 불자님 | • 이화진 불자님  | • 장근실 불자님 |
| • 이기태 불자님 | • 이익형 불자님 | • 이광섭 불자님  | • 김봉관 불자님 |
| • 최상희 불자님 | • 백묘도 불자님 | • 김천수영 불자님 | • 최영근 불자님 |
| • 구신흐 불자님 | • 구용희 불자님 | • 윤덕자 불자님  | • 문성득 불자님 |
| • 노혜옥 불자님 | • 정상무 불자님 | • 정석순 불자님  | • 이군숙 불자님 |
| • 용정운 불자님 | • 허만옥 교수님 | • 시인 안도현님  | • 한기듬 불자님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垂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 370-7139 (FAX 054-370-7169)



求道 (Bronze \_ 21×19×40cm \_ 1993)

## 雲門僧伽大學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번지 雲門寺 편집부 (054) 370-7139 / 종무소 (054) 370-7100  
E-mail : unmoon@cholian.net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98호·2006년 10월 17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비-01008  
발행처·운문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 고문·일진 / 편집·운문승가대학 문화부  
편집장·법안 / 편집위원·경석, 우연, 지성, 능교, 동우, 무아, 래하, 여옥, 범중, 여금, 호증, 혜준, 현도 / 사진·신진, 우연  
컴퓨터·범중 / 편집디자인·宮 미디어 (02)2285-3366

